



時 計 塔

SIGETOP



2007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4권 2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趙東峻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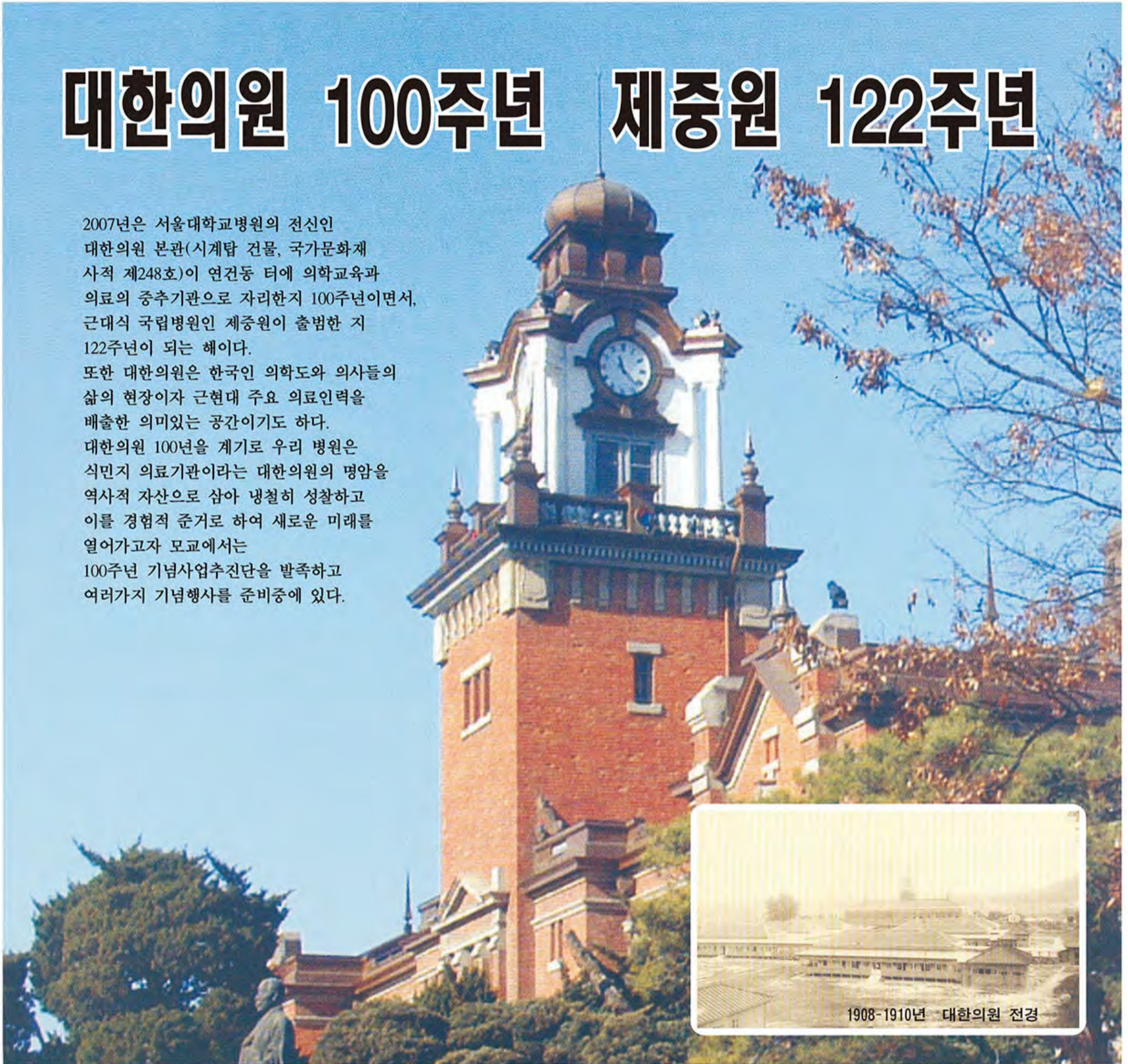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2007년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 본관(시계탑 건물, 국가문화재 사적 제248호)이 연건동 터에 의학교육과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자리한지 100주년이며,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출범한 지 122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대한의원은 한국인 의학과 의사들의 삶의 현장이자 근현대 주요 의료인력을 배출한 의미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한의원 100년을 계기로 우리 병원은 식민지 의료기관이라는 대한의원의 명암을 역사적 자산으로 삼아 냉철히 성찰하고 이를 경험적 준거로 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모교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발족하고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1908-1910년 대한의원 전경

2008 Annual Convention

March 16(Sun) ~ 20(Thur), 2008

Las Vegas, Nevada

Save the Date

학술위원장 이종현(66) 차기회장 최영자(66)

2006-2007 제1차 대의원회의 초록

일시: 2007년 1월 31일 오후 4시
 장소: Pacific Palm Conference Resort
 사회: 김홍서(69) 총무
 참석자:

정구영(57) 이운순(58) 박호현(58)
 이경화(60) 이희경(61) 서영석(61)
 이재승(61) 김윤경(61) 조한원(63)
 권정덕(64) 조동준(64) 최준희(64)
 송관호(64) 이홍표(64) 이한중(65)
 이종현(66) 최영자(66) 임 번(67)
 이현영(68) 김홍서(69) 이성춘(70)
 김일영(71) 강태수(71) 최광휘(76)
 김동훈(77)

특별 Guest:
 하권익 본국 동창회 회장
 정균희(72)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Proxy:

김용식(55) 노용면(55) 이만택(58)
 신상균(58) 김병석(59) 최종진(59)
 이상무(62) 이상원(62) 정정수(62)
 김태환(64) 황규정(65) 이명희(66)
 이건일(68) 문광재(68) 윤효윤(69)
 노재홍(71) 오동환(71) 오용호(72)
 석창호(72) 서인석(73) 문대욱(73)
 심인보(83)

1) 성원점검(25명 참석, 22명 Proxy : 총 82명중 47명) 후 4시 10분에 개회 선언

2) 2005-2006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 (6/25/2006)을 수정없이 통과 (동의, 정구영(57), 제청에 서영석(61))

3) 조동준(64) 회장인사
 - 이번 Winter Convention 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국에서 오신 하권익 동창회장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4) 김홍서 총무 보고: 이번 2007 convention에서 주기로 예정된 학술대회 CME credit이 사정상 주지 못하게 됨. 이번 학술대회와 컨벤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Certificate for Attendance 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차기 회장인 최영자(66)동문께서, CME credit을 준비하고 받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어려워 지므로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여서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견 개진함.

이재승(61)동문께서 왜 credit을 못받게 되었는지 해명을 요구. 1월달에 학술대회를 갖게되어 준비기간이 7월부터 시작해서 좀 촉박하였음. 12월에 학점(credit)을 신청하였으나 approve를 받지 못함.

5) 김동훈(77) 재무보고
 이번 년례 학술대회의 keynote speaker이신 전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 교수 초청비용에 대한 최준희(64) 전임회장과 최영자(66) 차기회장의 질문이 있었음. 비록 모든 초청경비를 후원경비와 donation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이사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의견을 냄.

Committee 보고

1) Finance - 서영석(61) 위원장: 보고서 참조.

2) Scholarship - 임번(67) 위원장: 장학기금 \$10000을 3:3:4 로 나누어서 이곳 미주에서 두 명, 한국의대 재학생 한 명에게 준다.

3) Fund Raising - 김일영(71) 위원장: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25000 이상 모금하였으며 시계탑에 명단을 게재하고, 따로 회장님 명의로 감사인사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 - 이명희(66) 위원장: 서면보고

현재 \$461,101의 fund(35% in bonds, 65% in stocks)가 01/01/06-12/31/06 동

안 10.14%의 수익율을 올렸음.

5) Publication - 김병석(59) 위원장: 서면보고- English version in Sigetop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입장을 보내왔음. (a)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2세대들이 쓴 글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조회장 말씀대로 영문학자를 한사람 고용해서 영문원고를 편집해오면 시계탑 편집위원회를 거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이현영(68) 위원장: 모교 동창회가 시상하는 합춘대상에 안연승 동문을 추천. 조동준 회장 말씀 - 안동문께서 받은 상급 1천만원중 20%는 본국 동창회에, 30%는 서울의대 모교에, 50%는 미주동창회에 기부 하시기로 결정하심에 감사 말씀을 드림.

7) By-Law - 노용면(55) 위원장: 서면 보고

8) Nominating - 최준희(64) 위원장: 다음 한달동안 차차기 회장을 알아보아서 추천할 예정임. Committee member는 현회장이 추천해 주어야 하니 조만간 추천해 주도록 부탁함.

차차기 회장은 중서부(Chicago)지역에서 나오길 바람(최영자(66) 동문), 그러나 그곳 지부 동창회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힘들.

8) Silver Project - 민경탁(65) 위원장이 사임하여 공식중임.

(9) Green project - 서인석(73) 동문: 상세한 서면보고

New Business

1) 매년 내는 membership due 에서 15%가 scholarship fund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하고 모두 동창회 general fund로 전환하는 안건. - 이는 2년전에 이미 모든 회비를 동창회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사항임 (이한중(65) 동문).

(2) 시계탑에 Color로 인쇄하는 건과 영어로 된 기사를 접수하지 않는것에 대해: (안된다고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조 회장에게 통고하였다 함.

조동준 회장- 영어로 된 기사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2세들의 기사를 권장 할수 없으며, 예를 들어 모 64년도 동기분은 미 주류사회 생활에서 영어를 더 자유스럽게 구사함.

이희경(61) 시계탑 편집위원- 2세들의 영어는 완벽하지만 그외에 동문들이 제출하는 영문원고는 문법상 오류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사람이 영문원고를 검토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임.

조동준 회장- 편집부에서 원고 자체를 받지 않는것은 시장해야 한다.

송관호(64)동문- 그동안 편집과정에서 영어로 쓴 원고를 고칠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제한한 것이니 2세중에 영어 원고를 교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 거절하지 말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임번(67)동문- 앞으로 영어 원고를 장려하도록 하자.

이희경(61)동문- 그러한 부정적인 인상을 준것은 잘못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영어원고를 실은 적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권정덕 동문의 동의로 시계탑에 영어 원고사양이라는 문구를 빼고 편집위원중 영어원고를 교정할 수 있는 분을 넣어서 재람에 맡기도록 하는 안건을 제안함. 최준희(64)동문 제청으로 통과 되었음.

2) 125불인 일년 회비를 안내시는 동문이 많다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

는가?

본국 동창회 하권익 회장- 그동안 평균이 70%만 내었으나 전화로 이야기하고 각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기별 동기별 방문하였고, 월급 봉투에서 회비를 미리 받기도 함. 지금은 99%까지 회비를 내고 있음. 결국 회장과 각 임원들, 학년 대표들이 회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촉하고 있음.

조동준 회장과 이종현(66)동문- 5년 혹은 10년 회비를 다 내면 평생 회원으로 회비를 면제하는 안건을 제안. 5년전 대의원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으나 반대로 부결되었음. 하지만 다시 고려 해볼만 함.

조동준 회장-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명단에서 제외하고 모든 권리를 중지시키자는 안건을 냄.

권정덕 동문- 동창은 회비를 내던 안내던 동창회의 회원이다 명단에서 제외하면 안됨.

이재승 동문- 동창회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benefit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주고 격려토록 하자는 의견을

냄.

이성춘(70)동문- 회비를 5년 계속 내면 incentive를 주자는 의견을 냄. 최준희(64)동문이 반대함.

이희경, 이한중 동문- 학년별로, 기별 동기회 회장에게 독려하고 잘내는 동기회는 시계탑에 게재하자는 의견을 냄.

권정덕 동문- Ad Hoc Committee를 구성해 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조동준 회장- 동창회에 \$3000 이상 기부하신 동문은 평생(life time paid member) 회원으로 회비 면제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냄.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By-Law Committee에서 회원의 정의부터 바꾸어야 함.

최영자(66) 동문- By-Law Committee에 special request 하자고 건의함.

3) 최영자 차기회장과 이종현(66) 동문이 내년 Convention에 대해 보고. 장소는 Las Vegas로 결정 하였고 시일을 이번 Convention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예정임.

폐회: 오후 5시 45분에 기념 촬영후 폐회 - 기록: 김홍서(69) 총무

Financial Statement

As of June 30, 2006 and For the Fiscal Year Then Ended

REVENUE

| | | |
|--|---------------|---------------|
| Membership Due | | 60,315 |
| Scholarship Contribution | 20,000 | |
| Scholarship from Membership | 8,270 | |
|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 <u>28,210</u> | |
| Public Donations (Sigetop etc.) | | 4,750 |
| Green Project Revenue | 1,323 | |
| Other Income (Advertising for directory) | | 18,477 |
| Total Revenue | | 83,542 |

EXPENDITURES

| | | |
|--|--------|---------------|
| Bank Charge | 24 | |
| Contributions (Katrina) | 2,000 | |
| Award | 300 | |
|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 | 7,350 | |
| Fraternity Activities | 725 | |
| Rent | 7,600 | |
| Payroll and Payroll Taxes | 24,198 | |
| Newspaper (Sigetop) Publication and Mail | 20,107 | |
| Membership Directory | 13,945 | |
| Postage/Shipping/Delivery | 3,557 | |
| Printing Copying, Supplies & Office Expenses | 4,254 | |
| Revenue Sharing | 825 | |
| Professional Fee | 2,550 | |
| Telephone | 2,774 | |
| Travel Expenses Reimbursements | 3,179 | |
| Utilities | 759 | |
| Total Expenditures | | 94,147 |
| Excess of Revenue over(Under) Expenditure | | 18,605 |

GENERAL FUND BALANCE

| | | |
|---|----------|-----------------|
|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05 | | (17,569) |
| Increase (Decrease) | | |
| General Fund current Fiscal Year | (10,605) | |
| Transfer from (to) Summer Convention | 4,913 | |
| Transfer from (to) Annual Ball | 5,205 | |
| Excess of Revenue over (under) Expenditures | | (487) |
|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06 | | (18,056) |

BALANCE SHEET

ASSETS

| | | |
|--------------------------------------|--------|---------------|
| Cash in Bank | 26,429 | |
| Pledge Receivable for Directory Adv. | 5,500 | |
| Computer | 980 | |
| Total Assets | | 32,909 |

LIABILITIES

| | | |
|--|--------|-----------------|
| Due to Hamchoon Research Project Fund | 1,430 | |
| Due to Scholarship Fund | 27,110 | |
|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 19,025 | |
| Appropriate Fund for Revenue Sharing | 3,400 | |
| Total Other Increase (Decrease) in Cash Position | | 50,965 |
| Net Fund Balance | | (18,056) |

Amended Jan 15, 2007
 Financial Committee Chair Soon C. Choi (66)

동문동정

강성용(55) - 과거 몇년동안 시계탑 1월호에 붓글로 신년축하를 쓰셨던 강동문이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폐암으로 별세하셨다.

김일훈(57) - 증거에 바탕을 둔 건강이야기 '생활건강학'을 발간했다. 김동문이 지난 5년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270여편의 칼럼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리고 새롭게 보완한 이 책은 405페이지에 한국의 의학신문사에서 발행했다. 지난 1995년 '나의 고국 우리문화'를 발간한 이래 8번째 저서이다.

추재욱(63) - 지난 3월 17일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김용재(66) - 장남 Louis 군의 결혼식을 지난 3월 1일 휘닉스에 있는 아리조나 빌트모아 리조트 호텔에서 거행했다. 신부 Aylin Tasbmau(26) 양은 터키계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BA 과정에 있으며 신랑 Louis(34) 군은 휘닉스에 있는 Brrow Neurological Institute에서 신경외과 레조우를 하고 있다.

김일영(71) - 김동문의 장녀 Gena 양의 결혼식이 지난 3월 17일 뉴욕의 St. Regis Hotel에서 있었다.

이원택(71) - 이동문의 장인께서 약 1년전 한국에서 담요암 진단을 받으시고 미국에서 오셔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매우 양호 하였으나 3월 10일 Nassire Stroke로 인하여 10일간 입원하여 계시다가 지난 3월 25일 새벽 향년 86세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남가주 소식

그동안 미루워 왔던 2007년 회장 취임식이 3월 31일 6시부터 한인타운에 있는 용수산에서 동문과 사모님들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약 15분간 1.5세 Kristy Kim, MD(서울의대 1회 졸업 김종설 박사 영애)의 C.O.P.D.에 대한 강연에 이어 서울대 물리대 출신 홍병식 박사의 "새해를 사는 지혜" 강연 30분 그리고 금발 미녀의 harp 독주 30분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10시까지 자리를 뜬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역시 신입회장 이희명(71)동문의 카리스마와 떼거지로 몰려온 마취과 출신 동문들의 저력을 보여준 이벤트였다.

박정일(67)동문 미국의학교과서 책임집필



미용성형외과전문의로 미국 중서부에서 성업중인 박정일(67)동문은 지난 2006년 10월 그가 편집책임자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서적출판사 WB Saunders서 의학교과서 Asian Facial Cosmetic Surgery를 출판했다. 책은 높은 가격(\$250)에도 불구하고 호평리에 판매되어, 출판 3개월째인 2007년 1월에 초판이 매진되었다. 책임자 닥터 박이 책 436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저술했고, 나머지는 같은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는 미국과 한-중-일의 권위자 21명이 분담해서 집필했다. 436 페이지 하드커버, 750개의 칼라도형 설명으로 6부와 44장으로 엮여짐. 책은 책이름(Asian facial cosmetic surgery)처럼 '아시아인 안면미용수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분야의 역사적 고찰과 현재의 수술테크닉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데 책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아시아인 특히 우리 동양인에게 이 분야의 수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순(口脣)확대 및 축소, 안면골격성형(광대뼈 축소, 턱뼈교정, 상악골교정), 안면피부 미용, 모발이식에 대한 수술을 설명했다.

백인종(Caucasian)에 비해서 '아시아인의 안면미용수술'은 그들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적 차이점과 그들 특유의 미용개념으로 인해, '백인종 안면미용수술'과는 방법과 개념이 다른 별개부분으로 고려되어 이 책이 저술되었다고 닥터 박은 밝힌다. 실제로 임상수술에 이용되고 적용 할 수 있게끔 책에 설명이 잘되어 있다는 정평이다. Web site: jparkmd.com - 시카고 동창회 기사제공 -

모국소식

해운대백병원 착공 2009년말 개원

인제대학교 백병원(이사장 백낙환 동문)은 지난 2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백병원 건립예정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지어질 해운대백병원은 17층 건축연면적 34,500평 1004병상 규모로 도심형 타워 형태의 현대식 병원 건물로 인간친화형 디자인으로 관광특구 해운대의 또 하나의 상징적 건물로 2009년 11월 개원 예정이다. 특히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1932년 서울백병원을 시작으로 부산(개금), 상계, 일산, 동래백병원까지 현재 5개 병원, 3,000여 병상 규모의 우리나라 사립병원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지난 75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하는 해운대백병원 건립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 경남권의 의료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최근 두드러지는 서울지격으로의 의료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동북아 의료 허브 구축을 통해 고용창출 및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낙환 이사장, 몽골유학생에게 4년전 화상치료에 이어 학비 지원

인제대학교 백병원(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은 지난 1월 26일 서울 백병원에서 몽골 유학생 '바트르게르 울지 자르갈(27, 여 이하 자르갈)에게 인당장학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여 화제를 모았다.

백낙환 이사장과 자르갈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르갈은 어리시절 화상으로 흉터가 심할 뿐 아니라 오른쪽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등 기능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백 이사장은 자르갈의 이런 어려움을 전해 듣고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였다. 자르갈은 지난 2003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백병원 성형외과에서 인공피부 및 허벅지 피부를 이식하는 등의 기능적, 미용적 수술을 받고 몽골로 돌아갔다. 이후 자르갈은 몽골 연합신학교를 수료하고 우리나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학하게 되었다. 백 이사장은 인당장학금에서 매년 8백만원씩 3년간 후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자르갈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PRESIDENT'S MESSAGE

사월에 들어서면서



지난 2월, 2007년 Los Angeles Winter Convention은 무사히 치루어졌기에 여러 동창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멀리 시카고 지역, 뉴욕 그리고 텍사스 등지에서 여행을 하신 동문들에게 감사한 말 전하고 싶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신 이길여 동문 하권익 회장 등 본국동문들, 특히 전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님, LA 컨벤션에서 저희 동창들과 나누어 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길여 동문, 하권익 회장님의 동창회에 쏟는 열정과 사랑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에서는 정구영 동문의 동창회 사람, 무슨 말로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창회에서는 안연승(64)동문에게 본국 함춘의학상 수상, 축하패를 선사했습니다.

정운찬 전총장님의 고매한 인품과 명석함에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것이 만남에서 얻을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40년만에 처음으로 미주동창회 컨벤션에 참가했다는 텍사스의 김충렬(63)동문, 또 후로리다의 안연승(64)동문이 옛친구를 만난 기쁨을 이야기 하면서 매년 참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정말 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베토벤을 무색케한 Alpine Hong의 환상적인 피아노 연주, 모두 꿈같은 시간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짧은 겨울 낮시간에 오전 학술대회, 오후 골프대회 그리고 저녁 파티 등 이어지는 행사에 무척이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으며 또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 뒷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골프야한 프로그램으로서, Getty Museum 관광, 요리 감상, 한인타운관광, Walter Disney Concert Hall 연주회 관람 그리고 non CME 강의로, How to improve English, Harmonizing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 between husband and wife 라는 귀한 강의도 좋은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 컨벤션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있는 모교의 한 학생으로 부터 감사편지가 왔습니다. 2002년 졸업 윤재원 동문에게서 미주동창회를 찾아서 기쁘다는 연락이 왔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곳 동문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 중단한 Colorado 기차여행을 6월에 다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20명 가까이 예약이 되어있으며,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61년 class, 65 class reunion 푸로그램으로 각각 50명 참가했었는데 다들 만족했다는 평이 나왔기에, 2년 가까이 survey 해오고 있는데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4월 중순 이전에는 예약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LA 컨벤션 행사에서 발견한 일 인데, 미국생활에서 아직도 예약문화에 익숙치 못하여 마지막 순간에 당황해하는 동창이 생각되므로 많은에 놀랐습니다.

바쁜 생활, 이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주동창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동창들이 생겨서 아쉬운 생각은 있지만 우리 동창회 활동은 이곳 미주에서 긍정적인 활동이니 저희 동창, 가족 그리고 이세들과 함께 계속 꾸려 가야 할 일입니다. 50개 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더라도 시계탑을 통해서, 또 이 컨벤션에서 가끔 만나면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이민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Delegate meeting 에서 시계탑 신문에 영어로 원고를 써도 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세들의 원고는 물론이고 오랜 미국생활에서 영어가 first language로 바뀐 동문들도 부담없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동안의 골프경기진행을 맡아주고 해주신 Mrs. 안병일(69), 모금을 많이해주신 김영일(71)동문 그리고 컨벤션 전체 진행을 잘 준비, 진행시켜준 최광휘(76)동문께 감사의 말 전합니다.

늦은감이 많은 시카고 지역 서울의대동창회 급년 회장 취임식에 하루만에 다녀왔습니다. 64년 졸업, 유능한 강창만 동문이 일년 말기로 되었으니 기대가 큼니다.

쌓인 눈이 녹아내리고,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면서, 저만치에서 봄의 냄새를 풍기는 벚꽃이 웃고 있는 계절입니다. 모든 동문들의 가정 화목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만날것을 기대합니다.

미주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회장 조 동 준 올림

동창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06년 7월 1일부터 2007 4월 10일까지)

| | | | | | | | | | |
|--------------|------|------------------|------|------------------------|----------|---------|------|---------|-----|
| 박근수(49) | 75 | 김기태(58) | 375 | 임영신(58) | 125 | 최창승(58) | 100 | 강상진(59) | 100 |
| 김병석(59) | 125 | 서경화(59) | 25 | 신한수(59) | 100 | 권기홍(60) | 1000 | 계훈택(61) | 50 |
| 고의걸(61) | 25 | 서영석(61) | 500 | 황현삼(61) | 125 | 권영조(63) | 2000 | 김태웅(63) | 500 |
| 김현철(63) | 200 | 이종민(63) | 125 | 송용덕(63) | 100 | 왕규현(63) | 200 | 권정택(64) | 500 |
| 김태환(64) | 100 | 노재욱(64) | 50 | 박성민(64) | 500 | 이광신(64) | 200 | 이유찬(64) | 500 |
| 이재풍(64) | 3000 | 이종성(64) | 10 | 이흥표(64) | 3000 | 조동준(64) | 1000 | 송관호(64) | 75 |
| 최준희(64) | 500 | 허선행(64) | 1000 | 이한중(65) | 100 | 최동욱(65) | 75 | 윤낙승(66) | 200 |
| 정양수(66) | 050 | 한동수(66) | 500 | 임 번(67) | 500 | 김주평(68) | 075 | 이건일(68) | 200 |
| 서 량(69) | 75 | 곽승용(71) | 100 | 김일영(71) | 3000 | 이원택(71) | 280 | 서상현(71) | 075 |
| 정인용(71) | 100 | 위장호(73) | 100 | 박세화(76) | 2000 | 최광휘(72) | 500 | 차민영(82) | 300 |
| Mrs. 설원종(66) | 200 | 차병원 광고비 | 2995 | Forest Pharmaceuticals | 3000 | | | | |
| Embryon Inc. | 1500 | Temple HospitalI | 500 | Profita Gamble | 1500 | | | | |
| Pfizer | 1000 | San Kyo | 4500 | GSK(Bonira) | 2800 | | | | |
| Gilead | 4000 | | | 합 계 | \$47,510 | | | | |

Fundraising Committee Chairman 김일영

배움과 만남의 광장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2007년 년례 학술대회를 마치고 -

이 원 택(71, 남가주)

구태어 맹자와 공자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기쁨에서 꾸준히 지식을 연마하는 것하고 오랫동안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을 빼어 놓을 수 없다.

반세기를 미국에서 살면서 수백번의 크고 작은 모임을 참석해온 김익창(56)동문은 지난번 컨벤션을 "그동안 참석했던 모든 컨벤션 중에서 제일 알차고 재미있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마지 않았다.

금년에는 미주동창회 회장이 남가주에서 나온 탓으로 LA 한인 타운에서 차로 동쪽 40분정도 거리에 있는 Industry Hill의 Pacific Palms Resort에서 1월 31일부터 2월 4일에 걸쳐 연참가인원 470여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나게 놀고 잤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날짜별로 주요 행사들을 기록해 본다.

1월 31일 (수요일)

흐리고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후 3시부터 등록이라길래 3시반쯤 호텔 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 발렛 파킹맨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10분이 지나도 거들떠 보는이가 없었다. 결국 김홍서 총무가 몸소 카트에다 짐을 싣고 체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마도 호텔측에서는 우리들 주머니사정을 고려해서 셀프 서비스를 시킨 모양이다. 그 후로도 하루에 두번씩 호텔을 드나들었는데 4일간 한번도 팁을 준적이 없으니 우리 서울의대 기질에 딱 맞는 호텔 선택이었다고 본다.



접수처에 가보니 벌써 우리 미주동창회의 내무장관이신 또순이 아줌마(실례!) 김혜경 씨가 딱 버티고 앉아서 '외상절대사절'이란 모토아래 일일이 회비 납부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김혜경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여명의 미주동창 성명과 졸업년도를 외우고 있는 국보급 존재임) 그 옆으로는 재무인 김동훈(77)동문 부부가 수납을 보고 있었고 또 총무 부인 Mrs. 김홍서 남가주 회장부인, Mrs. 이성춘이 둘러리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서 그런데로 보아줄만 했다. 향간에 '여자'와 '아줌마'를 서로 대치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날 이후로도 접수대를 지켜본 집행위원장 부인 Mrs. 최광휘, 골프위원장 Mrs. 안병일 등 우리들의 '꽃다운 아줌마' (덜 시들은? 안 시들은?) 부대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해마지 않는다.

이어서 5시반부터 시작된 웰컴 리셉션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노병호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장, 이정광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인조 마루야치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각테일잔을 들고 오랫동안 만나는 반가운 동문들의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일인당 25불이치씩 시켰으나 저녁

먹지말고 오라던 최광휘(76) 집행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hors d' oeuvre 몇조각으로 저녁을 때우긴 했으나 모처럼 만난 동문들과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 가슴과 내장까지 뿌듯하게 채워져서 안먹어도 배부르단 말은 이럴때 하는구나 실감하고 헤어졌다.

2월 1일 (목요일)

새벽 6시반의 미팅이라(?) 기자는 이런짓은 상놈(商人)이나 야만인이나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 새벽같이 부석부석한 눈을 비비면서 나가보니 벌써 모닝 커피와 크로상 몇조각 얻어먹으려고 길게 줄을 선것을 보고 야항(!) '바지런한 의사 선상님'들도 6시반 미팅을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조동준(64)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이날 Moderator를 한 이현영(68)동문의 Hypertension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동문에 의하면 고혈압은 aggressive 하게 치료를 해야하며 circadian rhythm 때문에 하루 24시간 변함없이 control 해야하고 약물치료는 end organ을 보호하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서 초청연사로 온 포천중문의대 차광열 총장의 "Stem cell research의 기대와 난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Embryonic stem cell은 윤리적으로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adult stem cell은 배양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각종 장기에 투여된 stem cell들이 얼마나 살아남는가 다른 사람의 stem cell일 경우 rejection이 심하다던가 또는 stem cell들이 병든 세포를 얼마나 대체할수 있는가 등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bone marrow stem cell을 순환계에 투여해서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10년후면 당뇨, 심장병, 뇌질환 등 많은 질병에서 stem cell이 치료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가지 새롭게 배운것은 세포분열을 반대로 진행시키는 핵분열개념인데, embryonic stem cell을 구하기 힘든 마당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Bone marrow stem cell에서 Mesenchymal stem cell, umbilical cord blood cell 그리고 Embryonic stem cell로 거꾸로 올라갈수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질병의 치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장기들이 젊어질 수도 있으므로 노화방지는 물론 늙은이는 어린애로 만들수 있는 기상천외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금년도 함춘의학상 미주 수상자인 안연승(64) 동문의 강의를 들었다.

금번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로서 다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서울대 전 총장 정운찬 교수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등록했다는 동문이 있을 정도로 인기와 기대속에 한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정운찬 전총장(특강 7면에 게재 - 편집자)은 근래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후보설에 대해서 이는 일단 한번 정상으로 끌어올려 놓고 흔들어서 떨어뜨리려는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게 밀바닥으로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는 방편으로 자신을 '불쏘시개 감'으로 쓰려고 하고 있

다는 토를 달았다. 옆에서 경청을 하고 있던 김명원(68)동문 왈 "저 양반 어느대학 나왔어?" 하길래 "그러는 Dr. 김은 어느대학 출신이오?" 하고 되묻지 않을수가 없었다.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끼리는 뭐가 통해도 통하는 모양이다.

다음번 타자로 등장한 우리의 재원 한혜원(61)동문의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강연은 정 전총장님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던 탓에 마치 따발총 쏘아대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전세계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 4억 중 75%가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수련의 시절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인종차별적 모욕을 느끼곤 했단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perinatal transmission으로 어릴때부터 감염이 되는 수가 대부분인데 이중의 90%가 만성감염으로 진행된단다. 만성감염이 되면 그중 20%가 간경화증, 23%가 간기능장애, 그리고 15%가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 난다. 다행히도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주사가 매우 효과적이며, Interferon (극심한 우울증 등 부작용이 많음) 이후 근래에 개발된 antiviral 약품들이 값은 비싼 편이지만 잘 들



는 편이어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간경화증이나 간암수술을 한 환자에게는 평생 투여해야 한다.

한마디 부연하자면 동양의 B형 간염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것이고 서양인의 감염은 주로 IV drug user나 잘못된 성행위로 생긴것이므로 따지고 보면 똥물은 개가 겨묻은 개나무라는 격이므로 우리 모두 기죽지 말고 한동문같이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해야 하겠다.

이날 CME의 마지막 순서로 강단에 오른 정유석(64)동문은 원래 30분간 시간이 배정되었는데, 앞에서들 다 잘라먹고 골프 티타임을 연기할 수도 없고해서 15분 동안에 열렁뚱뚱 끝낼 수 밖에 없었다.

나 같으면 때려치우고 내려올 만도 한데 그동안 정신과의사는 부업이고 책쓰는 일이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몇권의 책을 쓰다보니 관심이 있는자는 나중에 다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신조아래 유인물을 정준희(72)동문에게 건네면서 서로 둘러보라는 원숙함과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이날의 주제는 알콜중독과 창조성 이란 것으로 알콜중독에 걸린 22명의 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는 알콜 중독때문에 창작력이 마비되고 일부는 만년까지 왕성한 창작력을 유지했다는데 대부분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술을 안먹었으면 더욱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해마지 않았다. 특기할점은 이날 CME 강좌에서 정운찬 교수는 모범생답게 뒷자석에 앉아서

끝날때까지 시종일관 본인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의학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역시 서울대학의 직선총장이 될려면 무언가 달라도 엄청 달라야 되는 모양이다.

이날 오후에는 Mrs. 김홍서의 안내로 정 전총장을 비롯한 약 45명의 동문들과 사모님께서 게이티 뮤지엄을 관람했다는데 골프치기에 급급해서 CME나 문화생활을 멀리하는 동문님들! 우리의 정동문(서울상대 출신)에게 무언가 좀 배울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담이지만 정 전총장은 서울의대와 소실적부터 인연이 많아서 4-5년간은 의대 근방 동승동이나 연건동에서 살았으며 본인의 총장재임시 제2인자로 의대출신 정명희(71) 동문을 부총장으로 발탁해서 같이 일한적이 있는 친 의대동인 것이다.

2월 2일 (금요일)

이날은 기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환자 보느라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저녁때 음악회에만 참석했다. CME program은 abstract에 나온 것을 발췌한 것이고, Non-CME program은 참석자들로부터 귀동냥한 것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개회사에 이어 서울에서 왕규창 의대학장의 축사(대독)가 있는 다음, 권영조 동문이 moderator로 활약한 CME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의대 의학과 김상태 교수와 전우용 교수로부터 서울대학병원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김교수는 한국 최초의 양방병원인 제중원의 후계자가 연세대학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를 두고 각종 역사적인 사실을 고찰한 결과 정신적으로는 서양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린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었으나 기타 물질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관리하에 설립되고 운영된 제중원이 명실공히 '국립병원'으로서 같은 맥락의 국립병원인 서울대학병원의 모체라고 보고 있다. 혹시 연대의대 출신들이 듣는다면 "웃기지 마라"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어서 전교수는 서울대학병원의 원조는 1907년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창설된 대한병원이었고 이것이 1910년 조선총독부병원 또 1928년에 경성제국대학병원으로 명칭이 바뀐 다음 해방과 더불어 1945년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수되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대한병원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병원이므로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 공중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금은 건강 부회한 점이 없다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듣기좋은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임종식(57)동문의 전립선 암에 대한 강연에서 임동문 그룹에서는 최근에 전립선의 정상조직과 악성조직에서 다섯개의 epithelial cell을 영구적으로 배양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특히 악성조직에서 추출된 세포들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변이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전립선암의 발생기전과 궁극적으로는 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UCLA의 김두진 교수가 Inchemic croke 에 대해서 강의 했다.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이날 Non-CME의 이순자 심리학박사의 '부부간의 대화'는 인기 프로그램중의 하나였다. 이박사에 의하면 부부생활에서 남자는 90%를 sex에 10%를 대화에 비중을 두는다면 여자는 그 반대로 90%를 대화에서 10%만 sex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부조화가 올수 있다고 한다. 경청을 하고난 조동준 동문은 자기는 sex도 신체적인 '대화'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후회막급이었다. 이날 강의를 듣고난 많은 사모님들께서 내년부터는 CME 프로그램 대신에 Non-CME 프로그램들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였던데 기자의 좋은 소견으로는 이순자 박사 같은 여성해방 운동가(실례!)들을 많이 초대해서 남성들을 거세 해 보겠다는 작전인것 같다.

이날 밤에는 최광휘 집행위원장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고전음악의 밤'이 있었는데 우리 동문들의 음악수준을 고려해서 클래식중에서도 흥겹고 경쾌한 세미-클래식으로 프로그램 짰다. LA Opera에서 활약중인 Les Eloiles



piano trio와 소프라노 이현주양 테너 전승철의 공연도 좋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의사부모를 12세때 잃고 자수성가한 Alpin 홍이었다. 피아니스트로 주류사회에 널리 알려진 알핀 홍은 줄리아드 출신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 부드러운 vibrating music으로 많은 청중 특히 젊은날의 로맨스를 그리워하는 우리 사모님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알핀 홍은 속빠진 키와 예쁘장한(계집애 같은) 얼굴에 인디언스타일로 뒷머리를 동여매고 나와 기생오라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였다. 피아노 치는 품도 마치 안무라도 하듯이 하여 이 친구 마냥 품만 잡는구나 했는데 한 곡 두 곡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앵콜을 세번이나 받고난 그의 말 "최박사님 오늘 제게 빛 많이 지십니다."는 말을 듣고 과연 앞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연모와 자질과 배짱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2월 3일(토요일)

첫번째로 한국동창회의 하권익(63)회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는 서울의대 출신 개개인을 모두 '왕모래'들이란다. 개인적으로는 모두들 잘 났으나 동창회의 모금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역사나 졸업생이 반도 안되는 타 대학이 우리보다 두배 이상이나 모금액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동창회가 강력한 정착제가 돼서 양질의 모래알을 양질의 세멘트로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의 병원운영을 multi task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의사의 자질로서 D (deligent) O (open minded) C (challenging) T (tolerant) O (organized) R (responsible)의 다섯가지를 꼽았다.

두번째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cardirvascular fellow를 하고 있는 김수현양(아직 미혼)이 나와서 peripheral arterial disease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Dr. 김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천만명 가량이나 이 병을 갖고 있는데 그중 50%는 증상이 없고, 85%는 coronary artery를, 25%는 심한 carotid stenosis를 갖고 있으며 10 year mortality rate는

무려 40%나 된단다. 초기에는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 심해지면 endovascular procedure나 수술이 필요한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이란단다. 연사들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빠르지만 compact한 presentation을 매끈하게 해 냈는데, 청중속에서 "늬기집 딸인지 아주 딱 붙어지게 잘 하는구먼!"하고 감탄해 마지 않는이도 있었다. 알고보니 Dr. 김은 다름아닌 정균희 학술위원장의 처조카 딸이란다. 어쩐지 연사중의 많은분들이 정씨 성을 가졌다는데 (에드워드 정, 운찬 정, 수잔 정, 스탠리 정...) 이거 이렇게 정씨 일족끼리 다 해먹어도 되는거요(?)

세 번째는 정구영 (57) 동문의 palpitation에 대한 강좌가 있었다. 다알다시피 palpitation에는 양성과 악성이 있는바 heart disease, chest pain, fainting 등이 같이 있으면 소홀히 취급할수가 없고 특히 WPW syndrome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도 급사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부정맥의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pace maker, 그리고 전기요법이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정용 portable defibrillator를 사다 둘 필요가 있는냐는 물음에 이홍표(64) 좌장이 요즘 나오는 기계는 가격이 약 5000불 정도이며 환자의 심전도를 읽는 기계가 단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1, 2, 3, yes or no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약 30분간의 훈련만 받으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 환자의 심장이 멎었을 때 환자의 spouse가 yes할때 no button을 누르고 no할때 yes button을 고의적으로 누를지도 모르니 이것이 바로 배우자에게 평소 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했다. 이 사람을 모르면서 서울의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정구영 동문의 노련한 강의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동안 말할것은 하나도 빠지 않고 다 말해 버렸다.

네번째는 별난 취미로 지난 3년간 Bioethics을 공역해온 이석규(70)동문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Korean-American 들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념은 유교, 불교, 기독교의 교리를 섞은 데다가 한국과 미국 문화를 융합한 아주 복잡한 것이란다. 이동문은 'Hope against hope'나 'No dying, no religion' 등 골치 아픈 주제를 가지고 나온 댓가로 플랫북주 '보리밭'으로 머리를 식혀 주었는데 그의 강연이 90점 이었다면 플랫 북씨는 110점이라고 모두들 감탄해 마지 않았다. 또한 이동문은 얼마전에 작고한 이종성 동기에 대한 심심한 조의를 표하던 중 말실수로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서) 이성춘 동문이 돌아갔다고 하는 바람에 버젓이 살아있는 이성춘 동문은 '죽었다가 살아난 귀신'이란 인사받기가 바빴으나 아무튼 한번 죽었다고 소문났던 사람은 백살까지 산다니까 만수무강할 것이 틀림없다.

다섯번째로 나온 장재찬(65)동문은 Thrombocytopenia는 임상적으로 비교적 흔하며 종종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데 첫째는 출혈을 방지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둘째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셋째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아래 여러가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건국대학의 최수봉 교수는 만성당뇨병의 치료로 흔히 쓰이는 먹는 약과 인슐린주사로는 약 60% 밖에 치료가 안되는게 이것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과 beta cell에

dysfunction이 생기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나온것이 인슐린 펌프로써 이는 혈당을 하루에 7번씩 측정해서 인슐린을 공급해 줌으로서 지속적인 혈당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의 예방은 물론 환자로 하여금 필요한 양의 칼로리나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준다.

오전 non-CME 프로그램에는 외부에서 빌려온 연대출신의 소아정신과 전문의 Susan 정씨의 '思秋期'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매스콤을 많이 탄 탓인지도 몰라도 감칠맛나는 의상에서부터 세련된 제스처어려간가 간간히 섞어 넣는 농담은 서울의대 출신으로는 도저히 따라 갈수가 없었다. Dr. 정도 예외없이 여자를 상품에다 비교했는데 (만약에 기자가 같은 말을 했으면 틀림없이 매도를 당했을 것임)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인기상품' 40대는 '기획상품' 50대는 '반가세일' 60대는 '이월상품' 70대는 '창고세일'이란단다. 그리고 노인들도 60대는 'early senior' 70대는 'middle senior' 80대는 'mature senior'로 구분한다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동기들끼리 "애 재"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우리 동문들은 아마도 'immature senior(어린 노인이라기 보다 철부지 노인이라고 번역해야 함)' 입에 틀림없다.

바람부는 바람개비

이날 밤에는 금번 모임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만찬이 있었다. 기라성 같은 미주동창회 역대 총회장님들과 한국에서 오신 하권익 총동창회장, 이길여(57) 전 총동창회장, 박양실(60) 전 복지부 장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서 무수한 '총'자와 '장'자가 붙은 선남선녀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운순(58) 전회장의 선창으로 서울대학교가를 2절까지 부



르고 난후 이어서 조동준 회장의 인도로 지난 한해동안 타계한 5명의 동문(유준석 59, 윤만중 59, 설원종 66, 김정성 69, 이종성 70)들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다음에는 작년도 회장단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신입회장 최영자(66)동문의 간단한 취임사가 있었다.

첫날 리셉션때 먹거리가 신통치 않았다고 누가 불평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날 디너는 9 코스 중국 궁중음식이 나왔는데 (호텔 주인이 중국사람이라 함)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었다. 또한 전 행사일정을 통해 "all host bar"를 오픈해서 기자같은 악당주당(잘 얻어먹고도 트집을 잡는 부류)들의 입방아를 원천봉쇄했다. 다만 형식상으로 한사람당 2장씩 티켓을 나눠 줌으로서 혹시 dwi로 걸렸을때 동창회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서두 말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원래 이번 행사는 형식상으로는 남가주 동창회의 annual ball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워낙 거센 총 동창회의 기세로 남가주 동창회의 행사는 한마디로 꺾이는 보리자루 같았다. 퇴임회장 이성춘(70)동문은 "내 감사패는 언제 줄것인가"하고 학수고대했고 신입회장 이희영(71)동문은 취임식도 없는 회장감투

도루 반납해야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에 동부에서 온 오상현(71)동문은 이번 행사에서 복치고 장구치고 한 실세들은 다 남가주 친구들이고 오히려 타주에서 온 동문들이 꺾다는 보리자루 같았단다. 기자가 보기에 너무나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지른 '남가주동문들'의 실수였던 것 같다. 즉 전 미주 동창회나 남가주 동창회나 이름만 다를뿐 몸통은 하나라는 점이다. 뭐니뭐니해도 애뉴얼 불의 진국인 여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자. 역시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 초회장이 거금을 투자해서 모셔온 사회 김병규와 그의 악당들이 아주 부드럽게 2부를 끌고 나갔다. 이날의 장수무대는 노래와 춤과 게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hit는 우리의 천재 정구영 동문이었다. 각조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한명씩 뽑혀나온 4명의 수재 (당연히 기자도 그중의 한사람으로 뽑힘)들에게 '서울의대'란 첫머리를 따라 사행시를 짓는 시합이 있었다. 이때 2조에서 나온 정동문은 딱 버티고 서서 눈한번 깜짝하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서'에는 서귀포 '울'의 울릉도 '의' 의상대 '대'에는 대한민국 이라고 김병규 MC에게는 전혀 이해할수 없는 시를 읊는 통에 즉석에서 난방되고 말았다. 이는 바로 "서귀포라 남쪽 끝, 울릉도라 동쪽 끝, 의상대로 우뚝선 대한민국 만만세"를 간단히 줄여서 표현한 것 뿐인데 서울의대를 안(못)나온 김병규씨 한테는 난해할수 밖에 없었겠지만 우리 동문들은 모두 알아차리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만 어부지리로 정동문에 비해 내용도 유치하고 운도 잘 안맞는 기자의 사행시가 장원으로 뽑히는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역시 MC는 잘 고르고 불일이다.

다음에 진행된 각 조대항 노래자랑에서는 멕시코 복장예다가 퍼펙트한 스페니쉬로 '꾸꾸르 꾸꾸 팔로마'를 부른 박성민(64, 멕시코와 국경지대에서 30년간 살다보니 준 멕시코인이 되었다)동문이 2등, 그리고 1등에는 '그때 그사람'을 부른 '밤무대 출신' Mrs. 김성환(71)이 차지했다.

이어서 동부와 서부의 제비족 강태수(71)동문 부부와 노규상(66)동문 부부의 볼룸댄스 시합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강동문의 춤은 부드러운 곡선미를, 노동문의 춤은 박력있는 직선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본다. 심사 결과는 둘다 막상막하로 동점이었다.

이날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나온 정구영 동문은 유일하게 앵콜을 받아 구성진 뽕짜노래를 2곡씩이나 불러줬고 한국에서 원정은 하권익-이길여 듀엣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아주 일



품이었다. 너무도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 그런지 부부로 오해를 한 김병규 MC 왈 "두 분이 그렇게 오래 같이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박자를 잘못 맞추세요" 하기도 했다. 한바탕 흔들고 나서 오늘의 초청가수 Mrs. 이원택의 "A lover's concerto"로 노래는 마감을 하고 끝날때까지 밴드음악에 맞춰서 지루박, 차차차, 부르스, 탕고, 그리고 또 뭐더라 그 비비트는 것, 또 팔짝 팔짝 뛰는것 등등 (다음면에 계속)

2007년 연례학술대회를 마치면서

김홍서(69, 남가주)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24차 학술대회와 연례총회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LA 근교에 있는 Pacific Palm Conference Resort Hotel에서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회장 조동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비교적 가깝고 또 건조하고 온화한 자연 조건을 가진 이곳 LA에서 준비하면서 본국에 계신 많은 동문들께서 함께 참석하시어 이곳 미주에 계신 많은 동문들과 함께 의학지식의 상호 교류와 동문간에 친



선을 도모하기위해 준비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번 미주 연례학술대회와 총회(Annual Convention)에는 전 서울 대학총장이신 정운찬 교수와 한국 동창회에서 하권익 회장을 비롯하여 전임 회장 이시며 명예회장인 이길여 동문, 본 의대 동창회 부회장이신 박희백 동문,

(전면에서 계속) 신나고 숨차게 돌아 가다가 헤어졌다. 다 끝난후 텅수룩하게 머리도 안깎고 면도도 안한 (자기 판에는 그것도 멋이라고 나왔겠지만) 김병규 MC를 붙들고 "김병규씨! 다음 번에 올때는 이발도 하고 세수도 좀 하고 나오시오" 했더니 MC 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출연료 받아가지고 내일 이발관에 갈 예정" 이었다.

학술대회에 원래는 art exhibition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우리 동문 가족 아티스트들은 너무 비싼 나머지 소규모의 전시는 눈에 차지 않았는지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왕년의 '개똥 철학자'에서 근래에 '아직도 별로 유명해지지 않은' 사진작가로 변신한 김택수(63)동문만 사진작품 대여섯 판을 가지고 나와 강연장의 한구석에 전시하고 있었다. 김동문이 특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손수 현상 인화 확대한 이 작품들의 주제는 왕년의 '인간'에서 탈바꿈한 '자연'으로 역시 내츨릴해질수록 인간보다는 자연을 경외하게 되는 모양이다.

요번에도 남가주 시계탐으로 많은 동문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이원택동문이 또 한번 말썽을 부렸는데 그 북적대는 와중에 그의 총각 (출판사에서 판권짜지를 떼어주지 않기 때문에) 수필집 '만화경'을 좀 팔아달라고 때를 쓴 것이다. 단돈 10불에 판해서 동창회 기금에 보태 쓰라고 책을 기부한것까지는 좋았는데 인기가 없다가 서울의대 총동창회 회장을 10년이나 연임한 이길여 동문의 자서전 '바람개비'를 공짜로 끼워준 후에야 간신히 28권이 팔려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꼴이 됐다.

우리의 만년소년 이길여 동문은 의사가 이룩한 재단으로서 한국최대의 가천길재단을 아직도 손수 운영하고 있는데 산하단체로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가천의과대학을 비롯해서 여섯개의 종합병원, 두

전 보사부장관이신 박양실 동문, 심영보 동문, 윤정철 동문과 김종화 동문, 김건언 동문께서, 또 의과대학에서는 학장님을 대신하여 부학장이신 김규한 교수, 유철규 교수께서 함께 하시어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특히 Scientific Sessions에서 정운찬 전임 총장께서 특별 강연(keynote speech)에서 미래의 한국경제라는 제목하에 현재의 한국경제가 갖고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 말씀하시고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겪은 점들에 대해 이곳 동문들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금년 합춘 의학상 미주 수상자인 안연승 동문의 Platelets and Cell derived Microparticles에 관한 최신 발전상에 대해 알기 쉬운 강의가 있었고, 김규한 교수의 Atopic Dermatitis in Korea의 강의는 많은 청중들의 의문에 해답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대 동문중에 100권의 책을 펴내신 정구영(Edward) 동문께서 올해도 빠짐 없이 우리들에게 Palpitation과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 강의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 의대 의사학 교실의 전우영 교수, 김상태 교수의 제중원과 대한병원과 서울대학 병원과의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최수봉 교수의 당뇨병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최신 치료를 알려

개의 한방병원, 세계의 연구소 그리고 여고 한개, 종합대학 하나 신문사 하나, 박물관 하나, 등 그야말로 의료, 봉사, 문화, 언론을 총망라한 종합 공익재단인 것이다.

대부분의 동문들이 걸으로 들어난 일꾼들은 잘 알고 있으나 항상 그늘에서 살면서 막후에서 제일 중요한 자금조달을 한 김일영(71) 모금위원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김동문은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계 은행의 이사장이다가 삼남매가 모두 하버드 출신이고 대형 한국교회의 장로서 오른손이 한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칙아래 작년에 거금 3000불을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은 물론 이번 학회때도 여러 제약회사의 등을 쳐서 자그마치 1만불 이상을 조달했다니 이런 사람을 편히 '숨은 일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기에는 김동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동문들이 아직도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같은 '숨은' 인재들 서너명만 나와주면 우리 동창회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컨벤션을 성황리에 치뤘던 수훈은 워니워니 해도 동창회장 조동문에게 돌아가야 한다. 혹자는 조동문이 독단적이며 너무 push 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지도자로 쓸만하겠는가(?) 조동문은 수년전 은퇴를 하고 동창회 회장직을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손수 머리를 짜내고 손발로 쓰고 뛰면서 full time job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다고 본다. 심지어는 기자에게 한달전부터 취재요청을 해왔고 3~4일전에는 참가비 대신 내출테니까 모든 행사에 참석하라는 명령에다가 글을 쓸때의 지침까지 사사건건 빈틈없이 챙기셨다.

즉, "Dr. Lee의 글이 진보성이 강한 서부에선 먹혀들어갈지 몰라도 보수성이 강한 동부에는 잘 안통할 테니까 괜히 잘난척하다 망신당하지 말고

준 기회였습니다. 금요일(2월 2일) 저녁 파티 동안 이곳 미주에서 맹활약중인 천재적 Contemporary Classical Pianist인 Alpine Hong의 살아 움직이는 (vibrating music) 연주는 많은 청중으로 하여금 환상의 음악속으로 끌어 들이는 순간 순간이었습니다. 또 Les Eloiles Piano Trio (현 Los Angeles Opera 활약)의 연주는 그칠줄 모르는 관중의 열광과 박수속에 계속 되었습니다. 그의 Tenor 가수 성철(peter)전의 Granada by Agustin Lara과 조두남의 뱃노래, Soprano 가수인 콰(이)현주의 Ah! Je veux vivre from Opera Romeo et Juliette와 김동진의 신아리랑, Duet으로 부른 Drinking Song from "La Traviata" by Verdi 는 듣는 사이 어 느듯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토요일 밤의 annual banquet에서는 선배 동문과 후배 동문의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 미주 동창회의 전임 회장이시며 매 연례 행사 때 마다 개근으로 참석 하시는 정구영(59) 동문의 노련한 음악솜씨와 또 이길여 본국 전임 회장님과 하권익 회장님이 함께 노래 하신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이끌어 내는데 충분 하였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한마음으로 춤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태양 아래 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하얀 골프 볼을 푸른 하늘 높이 날라 내 보내보는 그 상쾌한 기분을 마음껏 즐겼으며 또 Getty Museum에서의 즐거운 시간들은 마치 하루의 24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

습니다. 게티 박물관에서 '거룩한 형상, 신성한 땅' 특별 전시회가 있으며 이집트 시대산 기슭 성 캐더린 수도원이 보관해온 비잔티움 시대의 회귀 성화들을 관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목요일 저녁에는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LA Philharmonic의 Sir Neville mariner, conductor와 Martin Chalfon, Violinist이 연주하는 Mendelssohn Symphony No 3 Scottish, Mozart의 Violin Concert No. 5, Rossini의 the Italian Girl in Algiers 'Overture' 을 감상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Walt Disney Concert Hall 은 1988년 세계적인 건축가 Frank Gehry가 설계한 다음 1996년도에 완공된 LA의 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위해 122명의 미 전역에서 참석하신 동문들과 멀리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 행사에 참가하신 동문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40명의 동문과 그의 가족들이 참가하시어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 winter convention을 마치면서 다시금 서울 의대 동창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천하 제일 서울의대 동창회에 소속된 동문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동문들의 기뻐하시고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다니엘 조 회장을 위시한 우리 임원 모두는 그동안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깨끗히 씻어 버리고 더욱 의대 동창회를 위해 일 할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official report로 쓰시오" 하고 official이란 말을 서너번이나 강조하셨다. 그 결과 이번 대회의 초록중 삼국사기체는 김홍서 총무, 삼국유사체는

이원택 기자의 것이다. 아무튼 근 일년간 갖은 고난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처럼 "회장 자리 못해 먹겠다"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조동준 동문이야말로 내년 한국의 대선(대통령 선거)에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 남자나 여자나 큰일을 하려면 '바람부는 바람개비'가 되어야 하는 모양인데 조동문 또한 나이가 들수록 androgen이 더욱 더 왕성해지는 모양이다. 별첨 골프 토너먼트 수상자 명단은 골프(실세)위원장 Mrs. 안병일이 저녁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계산해 냈기므로 일말의 하자도 없을것이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탐'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구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초래된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정(coordination)메커니즘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비교적 작고 단순하던 시절 '한국주식회사'(Korea Inc.)라고까지 불렸던 정부-대기업-금융의 삼각유착 조정메커니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정메커니즘의 부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루이스(W. A. Lewis)교수의 '경제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를 상실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오늘 적절한 조정메커니즘의 부재가 초래한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투자부진, 양극화, 그리고 한미 FTA입니다. 투자부진은 한국경제의 단기적·장기적 성장능력과 관련해서 핵심적 문제이며,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통합 및 안정적 성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문제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구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조정메커니즘의 구축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투자부진

활발한 투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의 기초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보유하고 있는 생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산능력도 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들은 너무 방만하게 투자했고 은행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은행의 부실채권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데 너무 신중해졌습니다.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축소 지향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 설비투자를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들의 재무구조나 수익성에 비하면 투자규모가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조업부문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86.1%로 아주 낮았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8.1%에 달했지만, 유형자산의 증가율은 6%에 그쳤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번 돈을 쌓아두거나 빚을 갚는 데 씁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은행은 중소기업이 좋은 투자 아이템을 가졌는지,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지 등을 심사하기보다는 쓸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투자부진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투자수익률의 저하와 왜곡된 투자구조, 이윤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의 위험기피를 그 원인으로 봅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 투자수익률의 저하와 왜곡된 투자구조

우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경제의 과제

정운찬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돈만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회가 많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점점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것

을 달리 표현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최근 들어 1970년대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보통 어떤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들에 비해 그 요소가 얼마나 희소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인력, 자본, 그리고 기술의 세 가지라고 할 때, 인력과 기술에 비해 자본이 희소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인력과 기술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인력과 기술에 비해 자본이 풍부한 상황, 또는 거꾸로 말해서 자본에 비해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력이란 새로운 투자아이템을 고안해낼 수 있는 인적자본, 다시 말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충분한 임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수준의 고급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도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모든 산업을 통틀어 볼 때 미국의 절반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에 비해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진 것이 투자수익률의 저하추세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그것이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저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축적과 함께 인적자본의 축적과 기술혁신이 미국에서는 꾸준히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도 눈에 잘 보이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인적자본이나 지적자본도 투자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물적자원에만 투자를 하던 과거에 비해, 인적자본이나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의 대부분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멀고 험난한 지식창조 과정보다는 대학입학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주로 투자되고, R&D 자금도 기초를 다지는 것보다는 당장 쉽게 돈이 되는 곳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물적자본에 비해 인적·지적자본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것이 장기적 투자기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2. 이윤기회에 대한 불확실성

다음으로 이윤기회에 대한 불확실

성도 투자부진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중저급 기술을 들여오면 바로 돈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만 있으면 큰 이윤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이나 기술들은 벌써 사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확실한 이윤기회가 줄어들면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만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설비투자를 하고 나면 이를 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은 상당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즉,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가치있는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적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도 설비투자를 미루는 위험기피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이 뒷집 지고 있게 만들기 쉽습니다. 정부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만들어졌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그 시행 3년째인 올해 말 시장개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기업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투자를 미루며 규제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대안을 택하였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대기업정책의 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규제도 일관성있게 정비해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위축

다른 한 편으로 중소기업들은 이윤 기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투자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에 더 익숙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자금 중에서 내부조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금의 내부조달률은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험관리와 정보생산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경제 전반의 유동성 과잉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성을 경시했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영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수익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위험기피 성향을 높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슈페터가 『경제발전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생명력은 창조적 파괴를 추구하는 기업가(entrepreneur)에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혁신적 은행가(banker)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기피 성향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기피 성향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최근의 투자 부진은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경제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투자기회가 감소한데다가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와 기업과 금융의 위험기피가 어우러진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록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특히 정부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업과 금융이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관계를 가지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고,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또 시장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모든 역할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양극화

다음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양극화는 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차별화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지구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낡은 지식과 생산방식이 도태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이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다윈식의 투쟁(Darwinian struggle)을 초래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조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자가 되는데, 승자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패자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I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소득분배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IT의 발달이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가 악화되고 사회통합이 악화되면 이것은 거꾸로 기술혁신을 저해해서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우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부문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인적, 지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인적,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왜곡시킵니다. 사회의 절반만이 지식

창조에 투자하고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나머지 절반은 투자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혁신역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단순히 정태적으로만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소득보조만이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동태적 측면입니다. 양극화는 단순히 사회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분할하는 것에 더하여 그것을 영속화하는 구조를 가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동태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포함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추구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어 사람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혁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혁신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직업을 선택할 때 다소의 위험이 내재된 혁신관련 직업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위험부담이 작은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금융도 모두 리스크테이킹을 꺼려하면서 경제가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의 저하도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젊은이들의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갈등과 불안정성의 심화는 사람들이 혁신과 리스크테이킹보다는 현상유지와 지대추구(rent-seeking)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혁신으로부터의 회피'(escape from innovation)라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세력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땀 흘려 소득을 창출하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의 가치를 턱없이 올림으로써 손쉽게 자본이득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특히 잡여정부가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자못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는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심화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게 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양극화를 가져오고 또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면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도 제약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패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누구나 지식, 정보, 자금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선,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단현상 해소,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간의 예상 수익률 격차를 줄여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투기 욕구가 현실의 투기 수요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한미 FTA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는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는 없으므로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방은 이론적으로 보자면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경제의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학자 케인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스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자유무역이라 말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논란을 벌일 수 없는 근본적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 와서는 'National Self-Sufficiency'라는 글에서 "사상 지식 예술 진절 여행 - 이런 것들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건은 가능하면 국산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은 국내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입장변화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당시 영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제1차 지구화 흐름이 나타났던 시기에, 그리고 영국이 팽창하던 시기에는, 경제개방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1차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는 지구화의 후퇴가 있었고, 영국경제는 자본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케인스는 당시 시대 흐름 속에서 영국경제가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지 어떤 불변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케인스가 바로 그 1933년 저작에서 자신의 견해가 교조화되는 어리석음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케인스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rhetoric)는 다소 거칠고 과장되어도 좋지만 일단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더 이상 시를 읊을 권리(poetic licence)는 없어지게 되며, 그 대신 그 동안 수사에서 무시되었던 비용들을 1페니까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국내경제 역량의 중요성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일단 지금의 세계경제는 제2차 지구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구화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경제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경제의 역량을 고려하여 개방의 시점과 수준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개방과 경쟁은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민간 경제주체의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율이라고 해서 아무런 규칙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화 시대에 경제활동의 직접적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기규칙(rule of game)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입니다. 경기규칙에 대한 불신, 심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는 혁신을 위한 노력보다는 로비와 지대추구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방과 경쟁이 효율성 증진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경제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역할,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역할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더욱 막중해집니다. 엄정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왔던 1990년대 중반의 증권사 사태나 최근 신용카드사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단기적 목표를 위해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개방과 경쟁의 확대는 오히려 커다란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앞서 양극화 문제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FTA 협상은 대외 협상과 대내 협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대내 협상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계층에 보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원칙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진행된 농업 지원 대책이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는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훨씬 더 큰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속도에 맞추어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아직도 지구화에 적응 중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방의 확대만이 질 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FTA의 추진속도와 개방범위는 더욱 거세질 지구화의 파고에 견딜 수 있는 법적·제도적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개방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와 갈등 조정 등의 과제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새로운 조정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이상에서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인 투자부진, 양극화, 한미 FTA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지구화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생기는 고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중진국의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지구화라는 새로운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조정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1. 사회적 조정장치의 부재

돌이켜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과정에서 형성된 중진국형 경제체제를 고집하다가, 선진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구화의 파고를 견디지 못해 가혹한 처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은 어떻게든 지구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운명메커니즘을 크게 변화시켰고,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수익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도 상당히 정리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무방비 상태로 지구화의 파고 속에 휩쓸려오는 과정에서 과거 대기업-금융-정부의 삼각유착으로 이루어졌던 조정메커니즘이 붕괴하고,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제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부진의 문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인적·지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이 대학입학증이나 자격증과 같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되고, R&D 자금도 당장 돈이 되는 곳에 투자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화 과정에서 역대 연봉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격화된 것입니다. 사회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약화되면서 사회통합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제도만으로는 경제혁신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구화가 제시하는 청사진, 즉 시장주의나 무한경쟁 등을 자의든 타의든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ffirma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사회적 안전망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럽에서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공공지출과 개인의 기부금 등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튼튼히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나라들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갖추어진 장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습에 뿌리내린 관행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은 그냥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묵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없다면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악육강식의 약탈적 기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이 혁신을 위한 리스크테이킹을 기피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 인프라 및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고자 할 것입니다.

시계탑의 보배님들

정 정 수(62, 펜실베니아)

나는 여러 학교의 교지들을 구할 수 있는대로 구해서 읽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시계탑만큼 수준 높고 나한테 동감 감명을 주는 신문은 없다. 서울동창회보도 시들한 광고 수상 이동 소식 너무 가끔 전문분야 글로 흥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우리 시계탑은 같은 분야 비슷한 경험과 생활을 하는 선후배님들의 명석하고 광범위한 경험으로 쓰는 글이라 그런지 늘 기다려지고 한줄도 빠지지 않고 읽는다.

노용면 선배님을 위시해서 역대 편집장 편집위원님들의 엄청난 희생적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끝이 없고, 또는 이런 면에는 내 사고와 사상과 올바른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몇분들의 이름을 들어 나의 주관적 시계탑의 보물님들로 꼽는다.

신상균, 임낙중 두 선배님의 글은 내가 제일 기다리고 열심히 읽고 재미나고 유익하고 내 사고를 바르게 하는 글로 나는 생각한다. 특히 임낙중 선배님의 암진단과 투병과정의 개인 사생활의 엄청난 충격과 고민과 고통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느끼시는 그대로 저의 동문들과 나누시는 용기와 솔직함에 정말 존경을 보내고 무엇보다 이제 위기를 넘기시는것 같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글을 동문님들에게 선물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일훈 선배님, 김경태 선배님의 명석한 두뇌로서 역사적인 기술과 의료제도에 대한 박식한 해결과 문제점을 잘 풀어 준다.

한해원 한수용 선배님의 오페라 전문감상글은 나같은 오페라 무외한도 어느정도 깨우쳐 주었고 가끔 저에게 선물한 오페라 DVD와 녹음 테이프들은 차에서, 지금은 은퇴해서 시간이 많으니 sun room에서 크게 틀어놓고 즐긴다.

Mrs. 송관호님의 전문문학인 다운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공감이가는 여러 소재들의 글들을 나는 무척 즐긴다. Mrs. 이운순님의 부드러운 글 낭만적인 영화평도 나의 모자란 면을 채워준다.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서량의 시와 그분의 섹스폰을 비롯한 예술재능은 나의 부러움을 산다. 정양수 동문, 정진목 동문님들의 너무나 수준 높은 한시들은 겨우 이해할 정도의 한문실력으로도 과이 시계탑을 빛낸다. 정유석 동문의 정선과적 경험으로 쓴 글, 이견일 동문의 Wine과 영화에 대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의 흥미를 준다. 정구영선배님의 훌륭한 업적과 성취와 은퇴후의 생활상들도 나의 은퇴생활을 도와 준다.

서인석 동문의 글, 특히 동창회와 후배들의 진로에 대한 글도 즐겨 읽

는다. 노용면 선배님의 법의학 실화와 농담코너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글이다.

2002년 Turf Valley Elliot City에서 summer convention tour program 으로 우리 동문 19 거뜰이 한 버스를 타고 테네시 주의 스노우키 마운틴, 조지아 유명 유람지를 둘러보고 오는 날에는 장장 10시간을 비오는 길로 볼티모어로 돌아 오는데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내가 사회를 하고 19 커플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이크를 잡게했더니 이운순 선배님 오페라 가곡 전 레파토리, Mrs. 이운순 영화감상 이야기 신상균 선배님 끝이없는 재담 모두들 한마디씩 재담, 와이당 노용면, 심영보님들의 점잖은 와이당, 이정은 부부의 합창, 아무 가라오게 가사도 없이 옛날 인민군 노래 일본노래까지 가사 하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정은 동문, 그 수준높은 사진전들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수재들이 모인 우리 서울의대동창의 일원임에 정말 자랑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주 있는 서울의대 선후배님들!!

60대는 60mile/hr. 70대는 70mile/hr., 80대

는 80mile/hr., 90대는 90mile/hr. 로 인생은 가속도를 내면서 흘러간다하니 그 재주들 모두 땅에 묻고 아까워하지 말고 9988 1234 하시기전에 우리 시계탑에 다 털어놓아서 우리 동문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후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자주 만나뵙기 기원합니다.

사랑한다면



나 두 섭 (73, 남가주)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은 구름을 탄 것처럼 즐겁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꼭 옆에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 했을 때에나 그리고 실수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영예는 다 없어져도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은 허무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것이 지나가 버려도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대가 나를 진정 사랑해 준다면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어느 시인보다도
그리고 어느 농부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자기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제 길을 찾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잘 통합하고 분산·관리를 가능케 하는 금융부문이 경제활동의 단기보수화를 막는 암묵적인 사회적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지구화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청사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수적인 암묵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주 인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지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부진과 양극화, 국내경제의 역량을 무시한 개방정책 등 지구화의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조정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묵적 지식을 쌓는 작업, 즉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고 전 국민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정장치의 확립 과정으로서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 작업입니다.

2.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기준(norm) 또는 준칙(rule),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다소의 이타심(altruism)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앞날을 내다보는 자세 등이 모두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공유를 쉽게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산시켜, 사회의 효용체계를 변화시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선호체계를 좀 더 넓은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개방된 선호체계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룰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제대로 작동하고 지구화의 부작용도 극소화될 수 있습니다. 즉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탈락자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보장된다면, 사회통합도 좀 더 용이할 것이고, 그 결과 지식과 기술의 발전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제도의 개혁이나 사회적 지출과 관련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어 지나친 위험기피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들의 신뢰와 이타심은 가족이나 작은 이익집단 내부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신과 배타성이 지배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사회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도를 바꾸거나 돈을 내는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자신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은 불신 때문에 쉽게 깨뜨려버리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정장치로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축적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단기적 손해와 장기적 이익'이라는 손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모두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기꺼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는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전략이면서 동시에 사회통합 전략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확산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공멸이 아니라 윈-윈을 선택하게 하려면, 리더가 나서서 윈-윈이 가능하다는 데에 대한 확신과 함께 윈-윈의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처럼 사람들은 개개인의 단기적 이기심을 추구하다가 공멸하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의 합의를 혼자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자는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일단 합의된 제도나 정책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사회의 합의를 어겼을 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조정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미국에서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경제적 강자는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게 법도 고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도, 법을 존중하는 풍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사회적 안전장치의 구축입니다. 경쟁을 중시하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지적자본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가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구축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 있는 추상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인 투자부진, 양극화, 한미 FTA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미주총동창회





살펴보는 년례 학술대회



동창회(L.A.)

임낙중(59, 메릴랜드)

"아버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같은 의사였습니다." 로 말문을 연 Pianist Alpin Hong의 인사에 이십사회 서울의대 Annual Convention 음악회에 참석했던 우리 동문과 부인들 모두 숙연해졌다. 그가 열두살 때 교통사고로 의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고 고아로서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 그의 과거 얘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청중이 없었고 이어서 들려준 혼신의 연주하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 주었다.

열광의 기립박수에 답하여 앙골이 계속되었고 소프라노 이현주, 테너 전성철의 노래로 점철된 음악회는 우리 모두를 classic music의 삼매경에 빠지게 했다. 음악회의 감동만으로 동창회를 찾아 메릴랜드서 이전마일을 날라간 보람이 있었다.

정운찬 전 서울대학총장의 한시간에 걸친 한국경제에 관한 특강은 순전히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라고 해도 좋다.

그는 그의 대통령 출마설에 대하여 여당의 불쏘시개나 야당의 흥행카드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경제의 부흥책의 하나로 부동산의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현정책 대신에 선시공 후분양으로 공급의 증가정책을 주장했다. 과거 자기는 가난속에서 서울대학을 졸업할때까지 가정교사를 했지만 그 덕분에 대학총장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지금은 교육평준화라는 그릇된 정책 때문에 가난한집 학생은 중학교서부터도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Social Capital 즉, Social Trust를 강조했다. 한국사회가 등과

뺨만 화제로 삼는 사회 즉 성적이 몇등이나, 살고있는 아파트가 몇평이나만 떠드는 이상한 사회가 된것을 비판했다.

정총장은 보수적 시장경제와 한미관계등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고 나는 그의 정견에 동의하며 그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speech style이 인상적이었으며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없는 지식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서울에서 참석한 하권의 서울의대 동창회장의 서울의대 애교 연설도 좋았고 그의 농담은 전문가를 무색하게 했다.

골프장 왕복버스길에서 김택수동문과 펼친 그의 농담은 버스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정형외과를 한분중에 그런 리더쉽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학술대회에 나온 연제들이 대부분 나처럼 은퇴한 의사에게도 흥미있고 유익한 연제라서 학술위원장의 애 쓴 뜻이 돋보였다. 어느 행사와 마찬가지로 뒤에서 수군 거리는 gossip도 들었다.

이번 회의의 CME Credit 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특강 연사의 여비를 이사회 동의없이 지출한 점,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Golfer들이 다녀 파티에 늦은 점 등등이다.

나는 이번 동창회에서 얻은 감동과 동창들과의 재회에서 얻은 즐거움에 압도되어 그런 가십은 아무래도 좋았다. 가십은 매운 양념으로 맛을 더했다고 생각한다.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조동준 회장과 그를 지원하신 동창 일동 그리고 사모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잘해야 본전, 잘못되면 목먹는 동창회 일이지만 그분들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동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펜을 들었다.

게 하여 스테이지는 건물 가운데 두었으며, 21세기 새 기술점단의 효과를 맘껏 냈으며 내부는 warm wood douglas fir와 cedar를 썼고, 단점은 기침만 하여도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근래에 개관한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홀도 같은 기술이 도입되어 웃핀 하나

가요 클래식 경연대회

조동준(64, 남가주)

지난번 L.A. Winter Convention 가요 클래식 경연대회에서 유행가라는 말이라든지 뽕짝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쓰지 않기로 정구영 심사위원장께서 선언하셨다. 듣고 보니 백번 동감하는 말씀이었다. 오페라라든지 이태리 가곡은 노래 뜻도 모르면서 클래식이라 하면서도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대중 속에 인기가 있는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렇게도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우리노래를 왜 뽕짝이니 유행가라 해서 비하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요는 바로 고전이요 가요 클래식라 함이 마땅하다.



한국에선 전국을 순회 하면서 송해씨가 사회를 보는 전국노래자랑 대회가 25년이 넘게 인기를 끌고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열기를 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짐작을 할 수 없다. 나 역시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녹음된 전국노래자랑 비디오를 매주 빌려보고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첫째로 꼽는 사항이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요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내 방에 앉아서 팔도강산을 다 구경하는 셈이다. 서당개 삼년에 풍월 읊는다 했는데, 나도 이제는 수준급 심사위원에 든다. 매주 최우수상을 혼자 뽑아보는데 심중팔구는 내 심사가 적중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노래방이 대유행이라서 요즈음 가요무대! 에서 실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무대 위에서의 각자 자신감은 대단하다.

이번 convention에서는 최우수상에

도전할 자신 있는 사람 여덟 명만 접수했는데, 그 경쟁 열기는 불만했다고 기억되며 심사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심사위원으로는 흥남과 선생을 아버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과 작년회장 최준희 사모님, 정구영(57)동문, 그리고 말석에 한자리 잡은 나 해서 4사람이었다.

최우수상에는 '그때 그 사람'을 부른 Mrs. 김성환(71)이었는데 심수봉이와 똑같이 불렀으니 일등에는 의의를 달 수 없었고 2등에는 멕시코 복장을 해서 나온 박성민(64)동문의 '꾸꾸라꾸꾸'로서 크게 어렵지 않게 결정이 나왔는데, 3등에는 Mrs. 방효준(64)이 '신아리랑'을 불러 낙착이 되었다. '있을 때 잘해'를 부른 하권의 본국 동창회 회장이 등수에 빠진 것은 내내 나에게서 아쉽게 생각되었다. 채점은 응원이 80점 배당되도록 돼있었는데 이걸 동문이 관중석에서 뛰어올라가서 이중창으로 변신하는 통에 MC 눈에는 부부로서 뜨겁게 열창을 하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본국응원단이 좀 약하긴 했었지만 부부(?)로서의 열연은 오래도록 남을 열연의 명장면이었다. 내년에는 본국 응원단이 좀 보장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끝으로 정구영 심사위원장의 찬조출연은 너무나 노련해서 감칠맛 나는 노래 가락으로 단숨에 두 곡이나 부르셨건만 아직도 귀가에 맴도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또 특이한 이야기는 아들이나 사위 집에 가라오케 기계를 반드시 선물로 사다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걸 보니 가요 클래식을 몸시도 즐기며 사시는 모양이다. 나 역시 가요 클래식을 즐기며 사는 것은 둘 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지난 convention 때 혹시 기회가 주어지나 해서 자동차 CD player에 넣고 다니며 3개월동안이나 부르며 독학을 했는데 한번 부를 기회를 못 가졌으니 그때 그 MC가 지금까지 원망스럽다.

이제부터는 전문 선생을 찾아 개인 레슨을 받아 가요실력을 한차원 올려야 할까보다.

을 이루었으며 분위기는 황홀경으로 울려 불태웠다. 그리고 다시 일곱번째 Scriabin의 For left hand를 연주하므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떨어뜨렸다.

알핀 홍의 연주,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는 두시간 반 동안 청중들을 완전히 매혹시켰으며 우리같은 환호성에 끊임없는 기립박수는 베토벤의 32살 때(작곡을 제일 많이함) 지은 월광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더욱 더 놀라게 한것은 우리 동창들의 음악감상 수준이 동창회를 빛나게 했다.

Alpin은 아버지가 의사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모님 밑에서 피아노 레슨을 다녔는데 어려서 부터 두뇌가 비상하고 음악 재질이 뛰어나 UCLA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음악하고 줄리아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당시 76년졸 최광희 동문을 비롯한 몇분의 친지들이 알핀 홍을 도왔다고 한다.

그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최광희 동문의 청을 흥쾌히 승락하여 뉴욕에서 약혼자(이비인후과 의사)와 이모님을 모시고 우리 동창회를 위해 왔다.

지금 그는 한달에 20회 이상의 연주 예약이 되어 있으며 일년에 300회 이상의 연주를 전국적으로 초대되어 연주 스케줄이 잡혀있는 정상 유명인사이다. 이런 분을 소개하신 LA 동창회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Los Angeles Convention

고애자(Mrs. 이운순 58, 뉴욕)

떨어지는 소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2,265석의 의자들은 Gehry가 디자인한 패턴인데 거의 거의 bench로 되어 있어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연상시킨다.

셋째날은 아마추어 탈렌트 쇼 대신에 프로페셔널 클래식 뮤지션들을 초대하여 하이든, 브람스의 트리오로 시작하여 소프라노 광현주, 테너 전성철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Granada, 듀엣에서는 라트비아타 중에 축배의 노래로 미국 정상급 수준의 성악가들로 풍성한 발성과 훌륭한 원동력이 과시되어 청중들을 흡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프로그램 2부는 피아니스트 알핀 홍의 연주로 멘델스존의 Capriccio in E로 시작되어 Chopin Etude OP 25 No 1 (왼손은 harp이고 바른손은 성당의 종소리를 울리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의 곡을 알핀 홍의 연주에서 적나라하게 종을 울리는데 harp가 뒷받침을 해주었다.)

셋째곡으로는 Debussy(프랑스, 1862-1912)가 28세에 작곡한 월광은 그의 piano suite 안에 4곡 중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베토벤의 월광

과는 다른 20세기 인상파적인 곡인데 그는 현대적인 달빛으로 비취주었다. 브람스(독일, 1833-1897)의 6개의 Inter Mezzo는 그가 Clara(수만의 부인으로 당대 유럽의 일인자로 꼽히던 피아니스트)를 평생 사랑하면서 한마디 표현하지 못한채 죽기전 그녀를 위하여 6개의 사랑이 담긴 주옥같은 곡을 남겼다. 이 곡이 연주될때 청중들을 사랑의 분위기를 움트게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나오는 Liszt(헝가리, 1811-1886)의 곡에서는 Where is my father and where is my peace의 기도의 제목으로 쓴 시를 읽고 작곡한 것으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다음 곡으로 George Gershwin의 Rhapsody in Blue 실상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게 지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솔로 연주는 오케스트라와 대등한 몇배의 웅장함을 표현하였고, 그때 연주 절정

이번 LA 컨벤션에 훌륭한 모임을 준비하여 주신 조동준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단께 진지한 신뢰를 보냅니다.

첫날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환영의 날과 더불어, 둘째날 학년모임이 있는 날에는 월터 디즈니 콘서트 홀에 초대되어(원하는 분만) 저희 58년 졸업 6쌍은 다 콘서트 홀에 가서 저녁을 같이 하고, Nivelle Marriner(guest conductor)-현재 상임지휘자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Esa-Pekka-Salonen)가 지휘하는 Rossini의 오페라 서곡 '알제리아의 이태리 여인'으로 시작하여 concert master Martin Chalifour가 연주하는 모짜르트 바이얼린 5번과 멘델스존의 Scottish Symphony를 들으면서 2007년도 동기 reunion을 뜻있게 하였다.

월터 디즈니 콘서트 홀은 Frank Gehry의 걸작품으로, Spain Bilbao Guggenheim Museum 이래 두번째 큰 설계로, LA 도시 발전계획의 하나로 3.6 에이커 땅, 전체 가든까지 비용 1.2 빌리언 달러가 들었고, 그중 274 밀리언 달러는 개인 모금으로 충당되었다. 3천장의 설계 도안과 예산의 두 배를 들여 16년만인 2003년도 10월에 완공된 건물이다.

외부는 바다 위에 뜬 유람선처럼 햇빛에 빛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세계 첨단 예술품이며 실내는 일본 Nagata 음향회사가 맡아 어느 좌석에 앉아도 음악소리가 똑같이 들리

금년은 남편의 서울 의대 62년 졸업 생들의 45 주년이 되는 해라 한국과 미국의 중간 지점인 하와이에서 일주일 즐기고 원하는 사람은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장 여행을 가기로 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뉴질랜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Lord of Ring과 Jurassic Park를 촬영한 곳인데 다 물이 있고 삼림이 우거진 곳이니, 불만한 것이 많으리라 기대 되었다. 2월 3일 폭설이 쌓인 빙점의 오마하를 떠나 호놀룰루의 비행장에 내렸을 때는 74 도의 쾌적한 날씨였다.

Hilton Hawaiian Village는 방이 1300 개가 있다는 큰 규모였고, 주위에는 고급 상점들이 들어 차 있어서 오가는 사람으로 분주 했다.

이 모임을 위해 거의 일 년 간 수고를 하신 이상원씨 부부, 늘 개근을 하시는 정정수씨 부부, 이용길, 구정열, 김한중, 김호균, 한상호, 조명호, 정태, 김경옥, 이영웅, 그리고 우리 오태요 부부 모두가 참석해 주셨다. 그 중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Dayton, Ohio의 이영웅씨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오셨고, 로스앤젤레스의 김경옥씨 부군 되시는 허 사장님도 그 불편한 몸을 마다하시고 오셔서 술도 사시고, 농담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셨다.

다음날 아침 식사는 설렁탕과 해장국으로 깎두기 하나를 놓고 먹었는데 그것이 매일 아침의 식단이 될 줄은 몰랐다. 식사 후 시내 관광으로 나섰는데 바람산은 의외로 조용했고 모두들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처음 생긴 한인 기독교회의 좁은 정원에 자그마한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대하면서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과 허무감을 느꼈다.

주정부 청사 앞의 카메하메하 초대 왕 동상을 보았고, 디너 크루즈의 배는 일본, 중국, 남미 등 각 나라에서 온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하와이 전통 음악이 흘러 나왔고, 그들의 민속춤 중에서도 예쁜 아가씨들의 배꼽춤은 몸에 잘 배어 있었다. 나중에는 모두들 손에 손을 잡고 좁은 배 안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갔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은 반수 이상이 코랄 크리크(Coral Creek)으로 가서 골프를 쳤다. 오후가 되면서 온도는 85도를 넘는 듯했고, 겨울 동안 못 치던 골프여서 더 힘이 들었다. 거의 모든 동문들이 하와이를 다녀갔지만, 한 두 개의 섬을 못 보았기에 그분들께는 특별 관광에 좋은 기회였다.

하와이는 오아우(탄남의 섬), 마우이(계곡의 섬), 하와이(난초의섬) 카우와이(정원의 섬), 몰로카이(우정의 섬), 라나이(파인애플 섬), 등 8개의 섬과 1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섬마다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2월 6일 더러는 새벽 5시에 큰 섬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갔고, 우리는 늦게 관광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이민사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으면서 진주만으로 향했다. 40여 년 전 이민 온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은 조건이었지만, 100여 년 전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이민이란 얼마나 뼈저리게 힘들고 처참했었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로 지금은 3세가 하와이 대법원장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와이 프린스 골프 코스로 달릴 때는 비가 오고 있었고, 도저히 마음이 내키질 않았으나 막상 칠 때는 날이 개여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다음날 남편은 마카하 이스트(Makaha

East) 골프장으로 간 사이에 이영웅씨 부부와 정정수 씨와 나는 박물관에서 소일을 하였고, 하와이 대학의 East West Center에서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특별 강연에 참가했다가 우리는 급히 비행장으로 향했다. 에어 캐나다의 공짜 자리가 없어서 아쉽고 아까웠지만 판

위에는 카타 주타(Kata Tjuta)라는 큰 산만한 둥그런 바위 덩어리들이 36개가 있고, 킹스 캐논(King's Canyon)이란 곳도 많은 여행객들이 하이킹을 하는 코스였다. 더위에 더부처서 고 통스러웠던 것은 수천 마리의 작은 파리들이었다. 하루만 있을 계획이어서 그물을 쓰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

62년 동기들이 남긴 황혼의 지취

김 명 자 (Mrs. 오태요, 오하이오)



사람들보다 하루 먼저 떠났다. 대부분의 동문들은 3일 후 다시 시드니에서 만날 것이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몇 몇 분들께는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미안했다. 호놀룰루에서 가까우니까 - 하고 호주 여행을 시도했던 것인데, 자그마치 10시간이 걸렸다.

날짜가 이틀이 바뀌고 10일 아침 7시 20분에 시드니 국제공항에 내려 12년 만에 친구와 반가운 포옹을 하기가 바쁘게, 에어즈 락(Ayer's Rock)이 있는 알리스 스프링(Alice Spring)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서둘렀다. 그리로 가는 여행객이 많은지 퀸타스 비행기는 만원이었고, 3시간 반을 빨간 불모지를 내려다 보면서 순행했다. 도중에 하얀 얼은 것과 같은 크고 작은 호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염전(Salt bed)들이었으며, 오래전 호주가 바다 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물론 여름이기도 했지만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의 하나라는 오븐 속으로 찾아 가는 우리였다. 말라 죽은 것 같은 잎사귀가 거의 없는 나무가 띄엄띄엄 보이고 기온은 100도를 오르내렸다.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서 디너와 아보리진 원주민들의 춤이 있었는데, 색다른 불만한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셔를 버스를 타고 6시간 걸려 에어즈 락에 도착했다. 1시간 30분이면 될 것이라는 헛 정보 때문이었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바위를 못 올라 간다는 싸인을 보았고, 3시가 지나면 바위와 땅에서 올라오는 열로 130도가 될 것이니까 계속 물을 마시라는 안내의 주의가 그치질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드문드문 원주민들을 보았는데, 정부에서 건네주는 돈과 술 쿠폰으로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 힘든 캅가루 사냥과 질병이 없어지면서 7,000 여명이던 인구가 250,000으로 급증했고, 그것과 아울러 사회 문제도 기하급수 적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물론 특별한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지역이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올라와 있는 세계 8대 불가사이의 하나인 이 큰 빨간 돌은 길이가 6마일이나 되고 높이는 1142피트나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돌 하나가 아니었다. 그 주

지 않아서 그 이유를 터득하고 후회했으나, 이미 상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눈, 코, 입, 귀로 들어가는 미물과 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삼페인을 마시면서 석양에 보는 바위는 또 다른 색깔이었는데 칠면조보다도 더 자주 변하는 듯 했다. 시간이 없어서 캐논에는 갈 엄두도 못 내었고, 비행기를 타고 그 광대한 주위를 내려다보지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날 저녁으로 밤기차를 타고 9시간 걸려 다윈(Darwin)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음번에는 겨울에 와서 시도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다시 시드니로 와서 동기들이 있는 중국 식당에 합세를 했을 때는 퍼붓는 비 때문에 구경을 많이 할 수 없었던 실망의 눈 들을 볼 수 있었다. 2월 13일 아침 식사 후 퀸타스 비행기로 3시간이 걸려 오클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하와이에서 신었던 골프 구두가 말썽이 되었고, 무사히 해결은 되었지만 \$400의 벌금을 낼 뻔 했다. 자기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관은 몹시도 까다로웠다.

에덴동산으로 올라가 멀리 멀리 한없이 펼쳐진 시야에 감탄을 하면서, 공해가 없는 맑은 공기를 잔뜩 들여 마셨다. 어디를 가나 맑은 공기, 깨끗한 지하수를 즐기면서, 아직도 이 지구에 이런 곳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부럽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3시간 이상을 달려서 와이토모 석회암 동굴에 도착 했고 세상에 또 하나의 불가사이를 대할 수 있었다. 푸파(Pupa)라는 반짝이는 반디 벌레와 비슷한 종류인데 오랫동안 생물 공부를 하였던만 들여보지도 못한 동물이었고, 배를 타고 조용한 동굴 속을 지나면서 쳐다보는 천정은 꼭 우주선을 타고 은하수를 지나가는 기분을 연상케 했고, 신비로움으로 더욱 더 숨을 죽이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아그로돔(Agrodome)에서 본 양 털 깎기 쇼와 19 종류의 양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하루에 300-500 마리의 양털을 깎는 기술자들은 수입이 상당히 좋다고 했다. 트랙터를 타고 그 넓은 농장을 돌아보면서 양과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안내원은 한국인이었다. 최근 10여 년 동안 15,000 이상의 이민들이 와서, 가는 곳마다 뉴

질랜드 사람이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나에게 흥미가 있었던 것은 포도 넝쿨처럼 생긴 키위(kiwi)나무였는데, 한 나무에 400-500개의 열매가 달리며 키위 와인 역시 맛이 좋았다.

온천과 유황의 도시인 로토루아(Rotorua)호수의 아름다운 터퀴이즈 푸른 물은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과 바위가루(sediments) 그리고 햇빛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대개가 다 수영복을 가져 온 것 같았고, 몹시도 냄새가 강한 온탕 과 열탕에 몸을 담글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모든 피로를 다 풀어 주는듯한 기분이었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지열로 쪼든 음식들을 먹었고, 감미로운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민속춤을 재미있게 보았다. 이들은 휘지(Fiji)에서 건너온 민족인데 그들의 음악에는 선율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눈알을 크게 뜨고 햇바닥을 쏙 내미는 행동으로, 적들에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15일은 레드우드 포레스트(Red Wood Forest)를 잠깐 산책했고, 와카레와레와(Whakarewarewa) 마오리 민속촌으로 갔다.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와 간헐천, 부글부글 끓는 진흙열탕 등은 미국 와이오밍 주의 열로우 스톤을 연상케 했고, 30인치 정도의 정사각형 나무상자가 우리 김장독처럼 문혀 있기에, 호기심으로 뚜껑을 열려다가 나오는 증기에 의해 얼굴에 화상을 입을 뻔 했지만, 시루떡을 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 주위에 살면서 뜨거운 증기로 추위를 면하기도 했겠지.

와이라케이 지열 발전소, 비용들이 지 않고, 공해 해치지 않으면서 생산해 내는 막대한 전기의 양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영국 여왕이 즐겨 찾았다는 아름다운 타우포(Taupo) 호수, \$200씩 내고 뛰어 내리는 번지 점프(Bungy jump), 이것을 하고 나서 인생의 사는 목적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으로 간 곳이 후카 폭포였는데 물은 하얗다 못해 퍼렇고, 손뼉같이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물을 쳐다 보자니 어지럽기도 하면서 겁이 났다.

16일 아침 한 시간 반 걸려 남 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했다. 여기서



부터 버스로 남으로 계속 내려가는 동안 보이는 것은 양들과 넓은 싱싱한 풀에 뒤덮인 목장,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들의 근면하고 조직적인 농경 방법은 안내의 설명을 들을수록 놀라웠다. 북 섬은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고, 남 섬은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생겼음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섬이었다.

푸카키 호수 위로 쳐다보이는 만년 눈 덮인 마운트 쿡(Mt. Cook)은 절경이었으며, 우리는 곧 퀸즈 타운(Queens Town)으로 들어섰다. 여왕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여기는 파란 물이 아니라 물이 너무나 맑아서 고기들이 뛰어 노는 것들이 환히 보였다.

2월 17일 거의 <다음면에 계속>

만남

졸업45주년 모임으로 해서

정 태 (62, 미시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여보게 친구! 이번 졸업 45주년 모임
으로해서 만남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하네그러. 만남은 길가에서 우연
히 만날수도 있을게고 또 우리 같이
졸업하면서 매 오년마다 만나자 약속
하여 그리 애써가며 만날수도 있을게



고, 생이별했던 사람(친구)를 우연히
기회가 되어 만날수도 있는 것이 아
니겠는가?

졸업하고 자네는 한국에서 나는 미
국에서 분주히 아이들을 키우며 공
부시키니라 또한 살림 장만하느라 몹
시도 분주히 살았을 때는 졸업하면서
약속했던 만남을 그리 쉬이 못하였어
도 이제 45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의 만남의 약속은 조금은 달랐어야
할게 아니었나 자문해 보네.

내 홀로의 마음에 졸업 45주년 만남
은 좀더 뜻있는 만남이 되리라 크게
기대를 품고 먼길 마다하고 가보았는
데 백쌍은 더 오리라 희망했던거와는
반대로 겨우 12쌍의 동기만이 이 만남
에 참석한다니 참으로 실망스러웠소
이다. 더욱이나 자네들은 한 명도 와
주질 않는다니.

지난날들이 회미해져가고 내일의
계약이 바람 뿐인데 오늘을 같이 만
나겠다는 학우가 겨우 12쌍...

하지만 자네들 없이 우리 12쌍의 만
남은 재미 넘치는 만남이었소이다. 회
국회국 시어가는 머릿발에 휘청히 굽
어져가는 허리에, 또 대머리 되어가는
학우들의 얼굴에 어제 없었던 주름살
이 하나 둘 더해가고 그리 웅장스러
웠던 골프 스윙도 찢금찢금 절어가는
삶의 순리를 어찌하지 못했어도 우리
들의 만남은 발가슴이 물장난치며 지
냈던 옛동무 만남이 행복함과 즐거움
그대로였다면 자넨 믿어주겠나!!

하와이 섬들의 기귀묘묘함을 육안
으로 느끼며 서로 마음 열어 나뉘가
며 즐거웠던 시간 시간들이 만남의
함께함이 없이는 어이 있을소이까?
어제 보았는데 오늘 봄이 뭐 그리 신
통하랴지만, 더욱이나 나홀로 사람들
의 달콤한 새벽 꿈을 깨울까 조심스

레 이른 아침의 정적을 백사장에 잘
씩이며 밀고 쓸리는 잠잠한 파도를
밟으며 종전에 뜬 기울어 가는 달과
함께하니 내 마음 해 뜨기전 이른 아
침의 정적 거의 그대로였다 자부하면
자네는 나를 피식 비웃기라도 할테지.
여보게, 자네 이때 나와 함께 이른
아침의 정적과 시작도 끝도 없이 밀
고 쓸리고 하는 지칠줄 모르는 잔잔
한 파도를 밟으며 뒤에 둔 흔적도 없
는 발자욱들을 헤어가며 기울어가는
달과 노닐지 못한것이 몹시도 마음에
걸리네 그러!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하여 그곳의
명소로 알려진 오페라 하우스를
harbour bridge를 배경으로 저편에서
보아어도 그곳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
된 Bret Whiteley의 'Alchemy'란 추상
화를 접했을 때의 내 자그마한 마음
의 감흥이 어디다 비할수 없었소이다.
더욱이나 명쾌하게나마 느껴진 그의
자필에 "the Fine Art of Painting"은
"Joke of Alchemy"라 한 것이 나
"Mutation of Transformation" 한 화가
자신의 해설이 내 마음을 몹시도 흔
들어 놓았다면 자넨 또 비웃을게지.
아무튼 내 감흥이 컸다네.

자네가 함께 이 작품을 접했다라면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편이 아기자
기한 자네와 나와와 마음 나눔으로해
서 덜 피로했으리. 아쉽네 그러, 함
께 못하였으니... 뉴질랜드란 섬나라가
북섬은 화산의 밀림이어서 바다에
서 솟아올라 이뤄졌고 남섬은 남극에
서 밀려 떨어져 생겼다 하였소이다.
어데서 어떻게 이루어진 섬들이든간
에 귀신도 얼씬 못하는 신선들만 사
는 곳이 틀림없소이다.

자네 이 섬 나라를 찾아본적이 있
나? 오로지 참조주만이 역사하여 놓
을수있는 기귀묘묘하게 깎아 세운 높
디 높은 산봉우리와 등산들, 그 사이
에 수줍게 끼워진 사람의 발길이 아
직 닿지 않았다는 계곡들, 아득히 멀
리 보이는 만설이 덮힌 산봉우리들
에서 간간히 실오리같이 흘러내리는 폭
포들, 또 시야를 아쁘게 할만큼 빙하
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는 넓디 넓은
평야 위에 맹수 겁내지 않고 제멋대
로 노니는 열소떼들 또 소떼들 모두
평화로운 불화의 불신하나 없는 절경
그대로였소이다.

꼬불꼬불한 도로를 달리는 버스속
에서 안내자의 설명에 귀 기울리랴
또 창밖으로 스쳐 지나는 절경을 놓
치지 않으랴 안간힘 써가면서 "와-아"

<전면에서 계속> 25년이 걸려 완성한
긴 호머 터널을 지나 밀 포드 사운드
(Milford Sound) 갔는데, 유람선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피요르드(Fjord)해안
을 빠져 나갔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
지는 폭포와 물개들이 군데군데 앉아
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을 즐겼다.
이 마을에는 특히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식당과 상점들도 매우 붐
볏다. 더군다나 한 여름이라 해가 길
어 저녁 식사 후 호숫가를 거니는 낭
만도 있었다.

2월 18일 강이 활처럼 굽어있다는
애로우 타운에는 140년 전의 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고,
금을 채취하던 곳으로 중국의 노부자
들이 많이 와서 일하던 곳이다. 비슷

한 시기에 시애틀과 알라스카에서도
금 채취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어쩌
면 역사는 병행을 하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마운트 쿡
주위를 돌겠느냐는 안내의 말에 좀
주저 했으나, 바람 한 점도 없는 청명
한 날인지라 남편과 나는 금방 결정
을 내렸고, 닥터 정과 닥터 김이 같이
동행했다. 6명이 타는 작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내 옆에 앉았던 중년의 미
국 여자는 겁이 나서 밖을 내다보지
도 못하고 자기의 구두만 내려다 보
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의 불안감
은 사라졌고, 사진 찍기에 바빴다. 만
년설에 덮인 마운트 쿡과 그 너머로
천만배의 규모로 한없이 뻗어나간 장

하는 감탄의 울부짓음은 흔들하는 버
스를 더 흔들하게 했지요. 빙하가 흐
르다 주춤 같길 잃어 갔었다 이루어
졌다다는 이곳 저곳의 옥색 그대로의
호수들을 접하였을때는 우리 모두의
감탄의 환호가 찬송으로 들렸다면 자
넨 믿지 않을테지...

북섬에서 미국의 엘로우 스톤에 못
지 않다는 용암지에 가서 용수가 하
늘이 낮다 치솟고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 거품내며 흘러 오를것이며, 용수
로 데운 온돌같이 만들어 놓은것에
누워 먼 하늘을 쳐다 보았던것, 또 유
황온천에 알몸을 담구어 편한한 마음
으로 여로를 달렸던 것들이 자네 함
께 했다면 더 좋았을걸세.

그날 저녁 용암에서 나오는 수증기
로 지은 음식을 먹으며 민속노래와
춤을 들으며 보았을 때는 자넨 함께
못한 서러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네
그러.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반딧불 동굴속에 이곳에만 서식한다
는 반딧벌레가 동굴 천정에 은하수를
이뤄는 절경은 이루 글로 표현 할 수
없소이다. 또 계곡에 만설의 산봉우리
에서 먼 옛날부터 처음 녹아 흘러내
리는 눈물이 내가 되어 그 흐름의 시
작부터 쉬지 않는 역사로 이뤄졌다는
chasm은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만 했지요. 이 절경을 David Henry
Therou가 접하고 외친 찬송을 석탑에
새겨 남긴 것을 옮겨봅니다.

'Chasm'

The finest
worker in stone
is not copper or
steel tools but
the gentle
touches of air
and water
working at their
leisure with a
liberal allowance
of time.

여보게 이에
어떤 글 더 필
요하겠나!! 절경
에 절경이었소
니다! 이에 또
크기에 따지면
손바닥만도 못
한 거울 높이
장엄한 산봉우
리들과 기귀묘
묘한 계곡사이
에 능림이 끼어
있음은 또 무슨
창조주의 장난
일까요!! 그 자
그마한 거울눈
에 내 때문은
몸이 비취질까
겁마저 내네 그
러.

문은 내 뭇때
가 부끄러워서

가 아니면 주위의 장엄함을 다 삼켜
버린 거울눈에 비추어 줄 자리가 없
으면 어쩌랴 열려서스러워서.. 헌데 어
디서 날아 왔는지도 모를 오리가 시
샘나서인지 그 정적의 장엄함을 요절
내 버리는데 내 흠마음을 잃었소이다.
시샘은 천연속에도 있었었다!

급담어리에 흑하여 망망한 대해를
향해하다 폭풍맞아 이리 저리 헤매다
찾아들었다는 해협의 깎아놓은듯한
절벽에 의젓한 대관을 쓰고 큰 눈으
로 천상대장군이 배에 탄 우리를 지
켜보고 희뜩희뜩 녹색 수염한 공자의
의젓한 입상, 무섭게도 얼굴 치장한
총장의 요염한 모습 또 미륵불의 자
비로운 위상 더욱이나 불쑥 튀어나온
절벽에 두 연인인듯 천년 기약을 하
는 모양을 마음에 접하여 그려가며
자네 함께 못함에서의 아쉬움이여 결
에 함께했던 학우들마저 아랑곳 없이
그저 무아의 적정에 그대로 끌려갔네
그러 합창하여 시원스럽기만한 바닷
바람을 뱃머리에서 맞으며 이 때 저
때에 묻어 무거웠던 몸을 사뿐히 씻
어보려 애써보고 멀리 바다 저쪽 아
득히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 있을 적
정을 그려 보았소이다. 거기에 자네와
함께 못함에서의 서러움, 더 나아가서
는 이 속세의 시비증애의 때가 아랑
곳 없을테니까!

여보게 아니 그런가?
내일의 바람이 이뤄진다면 그뻘 꼭
만나 함께 함세!

나에게 무슨 효심이 있단 말인가

허 서 룡 (66, 밀워키)

보청기를 끼고도 들을까 말까한
어머니 귀에대고
어머니 사랑해한들,

혼자서 층계를 오르지 못하는 어머니 모시고
어디를 가려고한들
이제 와서 무슨 효심이란 말인가

아들을 껴안고
며누리 껴안고
손자와 손녀를 껴안고
언제 또 보나 흐느끼던 어머니

항상 공항까지 따라 나오시던 어머니
오늘은 13층 꼭대기에서
보일락 말락 손흔들어 보내시던 어머니

서울의 반대편으로
이리도 빨리 날아가버리고있는 나에게
터질듯한 흐느낌을 안고가겠만
무슨 효심이 있단 말인가
한가닥 효심이 있다하들
이제와서 어쩔 것인가

(어머니 미수연에 다녀오면서)



엄한 산맥들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른 호수, 우
유 색깔의 허연 호수, 까만 바위, 흰
바위 등등. 까만 바위가 많이 솟아나
있는 것은 눈이 거의 다 녹아 내렸기
때문이고, 그것은 지구가 점점 더워지
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 동안 판
분들은 커피를 잡수시고 개의 동상을
보신 듯했다.

2월 19일 우리의 여정도 거의 막을
내리는 듯 했고 대성당을 잠시 본 후
해글리 공원으로 갔다. 넓고 넓은 대
지에 자리 잡은 공원이었는데, 크고
희귀한 나무들과 온실 안에는 탐스럽
게 잘 자란 온갖 꽃들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 피어 있었다, 점심 후 친구들
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 또 만나기

를 약속하면서 크라이스트처치 비행
장으로 향했다. 시드니에는 친구가 기
다리고 있을 테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3박 4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3주는 길고도 긴 여행이었지만 눈
썹인 오마하에서 벗어나, 파라다이스
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먹고 마
셨고, 우리는 세계 불가사이 8개 중
2개는 본 셈이어서 정말 보람이 있었
다는 즐거움에 아직도 들떠 있다. 이
제 사진과 이 글을 정리하고 나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페이지가 자리를
잡게 되겠지. 여러 동기님 그리고 사
모님들 좋은 시간 나눌 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
두 건강하십시오.

"선물." 방에 들어선 A는 제트기가 인쇄된 종이를 건넸다.

"고마워요. 미사일이 달렸네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950년대까지는 육군과 공군은 하나였어요. 그 제트기가 육군 건지 공군 건지 알 수 없죠. 육군 공군 마이크로소프트 클럽아트예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난 컴퓨터를 좋아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해요. 클럽아트도 좋아해요. 클럽아트. 요즘 TV에 자주 비행기가 나와요. TV에 9/11이 다가오면서 더 많죠. 이라크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라크에 대한 얘기. 이제 군대 얘기는 그만하고 치료를 시작하죠. 치료. 상담. 상담. 치료."

A는 늘 선물을 가져온다. 처음 만났을 때는 뇌 속에 책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두 번째 만난 날엔 하버드가 평범한 글씨체로 커다랗게 인쇄된 종이를 주며 할아버지 모교 자랑을 한참 했다. 세 번째 만남엔 A의 모교가 검은 매직으로 뽀뽀뽀뽀 찍힌 카드를 주고 갔다. 네 번째부터는 첫 번째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제트기 그림을 선물 받는 의사를 본적이 있다. 미그기와 스커드, 패트리엇 미사일이 몽땅 머리에 커다란 이름표를 단 그 의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불을 좀 꺼도 되겠어요?" 어느새 벌써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불편해도 A가 하고 싶다는 걸 막지 않는다. 다행히 방 동쪽 면이 다 유리고 마침 해가 뜨는 시간이다.

"눈이 부셔서요. 눈이 부시면 짜증나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각만 예민해 졌어요?"

"소리에도 민감해졌고 모든 것이 짜증나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한 시간. 많으면 세 시간."

"힘드시겠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예요. 도와주셨으면 해요. 짜증이 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침묵〉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다. 우리 사이엔 무언의 규칙이 있다. 한 시간 내내 A의 자랑을 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한 마디라도 하면 금새 연성이 높아지며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넌 나빠!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날 조정하려 하고 있지? 넌 날 괴롭히고 있어. 아버지하고 똑같아! 지금은 나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고 해야 할 말이 많아.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버지하고."

표리부동 독불장군 아버지와 그에 복종하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두 모습 중 어떤 성인의 모습을 닮아야 할지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라고 하니 평생 일을 하지 않아야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의사가 살 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자 더 많이 먹고 수일 만에 맞는 옷이 없어지기도 했다. 그토록 절박하게 혼란스러웠고 이에 맞서기 위해 통제와 힘이 필요했다. 알맞게도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남들의 평가로 자아를 빚는 수동적 모습, 자랑, 지배욕. 즉, 내가 상징하게 된 그의 아버지는 A 자신의 투사체이기도 하다. 치유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내심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염원했다. A는 복수의 환상에 도취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초등학교 반장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증오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A가 일어나 앉아있던 의자를 번쩍 들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전공의 1년 차 첫 달 응급실에서 정신과 임원이 필요치 않다는 소견을 전하자마자 협박과 동시에 얼굴을 겨냥해 의자가 던져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A는 다행히 의자를 내게 던지진 않았다. 방문 앞에 내려놓았다. 다시 앉아서 문을 주체할 수 없는 양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A의 몸집 때문에 그의 행동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리라. A의 체중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250킬로

정도까지 짊 수 있는 병원 체중계의 한계는 넘은지 오래다.

"저 지금 무서워요. 유일한 출구가 막혀서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요." 며칠 전 평소 존경하던 정신분열대가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맞아 죽었다. 긴박한 와중에도 이를 계기로 위험 대처방법에 대해 다시 뒤져 읽어두었던 게 다행이란 생각이 스쳤다. 안도감과 뿌듯함도 잠시. A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씩씩거리며 앉아있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 다시 말해보았다.

"무슨 짓이야! 내가 죄책감이라도 느끼길 바래?"

"그리 느끼고 있어요?"

〈침묵〉 죄책감? 내가 이제 가해자로 보이지 않는 건가? 효과가 있나보다. 대책 없는 희망을 가져보는 버릇이 도졌다.

그가 난데없이 어린이 여름 캠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 인질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온 정신이 쏠려있었다. 비상벨을 누를까? 책상과 무릎 사이에 놓인 빨간 버튼을 쳐다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A가 눈치채지 못하게 누를 수 있었다. 수분 내에 경찰이 도착한다. 근데 문이 방 안으로 열린다. 경찰이 문을 밀면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A에게 내가 그들을 부른 것만 알리는 꼴이 될 터인데... A가 달려라들을 시간은 충분하다.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거 알아? 지난 석 달간 난 여기에 매주 왔는데... 넌 한 번도 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어."

"제가 전화하기를 기대했나요? 애써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다.

"물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아무것도."

"생각해봤으니까 얘기를 꺼냈죠. 생각하는 와중에 생긴 기분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

소중한 치료의 순간이다. A가 일상에서 삶의 정보를 소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된다. 무섭다. 접을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논문이나 교과서에서 읽은 이런 순간들에 저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들의 치료환경은 개방된 공간. 주 4-5회씩의 만남. 지금 이런 곳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A는 혼자 여름 캠프 얘기로 돌아가 있었다. 유년시절 한 번 만난 사람들

의 이름을 줄줄이 잘도 기억하고 있었다. 사위시설, 침실, 그 외 야외 시설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

"우리가 하던 얘기와 여름 캠프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다 연결돼 있는데! 거긴 전화가 없었던 말이야!"

"그래서요?" 〈침묵〉

나한테는 너무 자주 돌아오는 월요일이 A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매일매일 다음 월요일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 A는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고 난 늘 떨어뜨려 놓으려 애썼다. 20분 정도 남은

시점부터 시계를 본다던지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등의 암시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알리면 늘 실망과 분노가 서린 표정으로 노래를 불러댔다. 가사의 뜻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Ranger (군 순찰대원)들은 팽세를 하지. 절대로 전우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죽은 전우일 지라도. Rangers, Rangers, Rangers... 대여섯 질 정도 부르고 나면 만족스러운지 문을 열고 나가곤 했다. A는 늘 문을 열어둔 채 떠났다. 난 얼른 달아버린다.

그는 늘 예약 5시간이나 전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전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마이크 테스트라도 하듯 숫자를 세기도 하고 무전기 놀이를 하듯 날짜, 시간, 이름을 반복해서 녹음하기도 했다. 응답기 용량초과를 막기 위해 매일 비워야했다. A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삭제 버튼을 반사적으로 누르기에 이르렀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말 내내 녹음해놓은 성가를 신속히 지우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다. 성욕으로 머리가 가득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던 기억도, 날 보면 힘들다며 면벽한 채 성욕을 창조한 신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던 기억도 함께 지우려 애쓰며, 본능적 욕구를 억제한 환자가 장하고 고마운 마음 대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감옥에 갔던 과거를 떠올리며 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교수들 사이에서 이리 저리 떠돌던 환자를 전공의에게 떠넘기면서 매주 한 시간 이상 봐주라는 주문까지 한 노교수에 대한 분노도 느꼈다. 공격성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환자를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보는 건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A 가족의 사회경제적 형편이 아니었더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약도 안 먹는 환자가 그저 본인이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래 정신치료 환자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만약 내가 의사고 당신이 환자라면, 당신이 환자라면, 내가 전화를 안 하면, 한 번도 안 하면, 당신은 상처를 받을 거야. 상처를 받을 거야."

"전화가 없어 맘이 상했군요."

〈침묵〉

"솔직히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요. 긴급한 내용이 아니면 메시지를 듣기만 할 뿐 전화는 하지 않겠노라고. 긴급할 때와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역시 함께 의논했구요. 전화를 안 해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환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이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 말은 하지 않아도 됐다. A는 자신의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는 게 싫다고 말했다. 애착과 독점적 소유에 대한 집요한 요구를 확실히 거절하고픈 내 무의식의 작용이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겠어요?"

기분 상하는 말을 들으면 바로 화를 내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위해 써보라고 내가 제안했던 말이다.

"전화가 없어 상처 받으리라 생각지 않았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침묵〉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돌변한 태도로 부자연스런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말했다. A가 나간 방문이 열려있었다. 난 문을 닫지 않았다. 문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홀로서기가 두려운 42세, 의존과 독립의 갈등이 빚어낸 양가감정과 분노가 스스로도 두려운 어른. 의사를 수집하는 환자. A는 동시에 세 명의 정신과 의사를 봤다. A를 떠넘기려 했던 의사는 그의 보복 위협에 약물치료는 계속하기로 타협을 보았다. A는 소아 용량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약을 그나마 반으로 쪼개 먹는다. 필요가 없단다.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십수년간 다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다. 내 외래 스케줄에 슬쩍 끼워 넣은 할머니는 15년 전 A의 의사였고 지금도 A와 자주 만난다. A는 이들의 핸드폰, 호출기도 수시로 사용한다. A가 거쳐간 많은 의사는 우연인지 대부분 이주를 떠나버렸다. 나도 몇 달만 잘 버티면 떠날 수 있다. 폭압적 권위체계에 맞서지 않고 무사히 이곳을 떠나고 싶었기에 조용히 잠시 학대를 당하겠단 결심을 하기도 했다.

의사와 환자가 한 방에 갇히면 전쟁이 시작되고 살아남으면 둘 다 치유된다 - 지나쳤던 분석이론이 세상 처절하게 느껴진다. 의사-환자 관계에는 세속의 모든 감정이 오간다. 정신 분석가들은 평생 이 관계를 공부한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의료의 대상인지, 세상은 바꾸고 싶지만 스스로 변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환자라 불러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급격히 발전하는 뇌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처방전을 갖는 게 신세대형 정신과 의사라 생각했다.

퇴근길 두 시간째 차 속에 앉아 인질극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다 교통정보를 들으러 라디오를 켰다. 정신병 환자로 보이는 남자가 수상한 물건을 들고 시내 중심에 서 있어서 세 시간째 곳곳의 교통이 마비란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해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용맹스런 전사들이 떠올랐다. 잠, 화장실, 식사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제때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생활을 반납한 내 20대가 아깝지 않았었다. 그런 20대를 보내기 위해 10대 역시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데 나이 서른을 앞두고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린다. 계속할 자신이 없다. 늘 노심초사 안쓰럽게 지켜보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내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나도 모르게 서럽게 한참을 울어댔다.

단 하루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잡혀있던 직장 면접을 다 취소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락도 단절한 채 혼자 고립되어가고 있었다. 치유가 필요했다. 이 사건에 대해 두 달 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다. 혼자서 한 imaginal exposure 〈다음면에 계속〉



2006년의 다사다난 했던 한해도 덧없이 지나,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고 특히 금년이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니 그말에 맞게 좀더 행복하고 뜻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내가 2005년을 끝으로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정들었던 개업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선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났다. 은퇴하기전에 항상 생각했던 의료봉사의 길로 나서서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봉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의사라는 직분을 떠나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임해서 의지할 곳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해를 돌아켜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을 여기에 소개하며 앞으로는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것은 물론 좀더 나아가 불쌍한 그들을 좀더 '사랑'으로 보살펴주어 마음의 병을 다스려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년 1월부터 영등포 역전에 있는 요셉의원에 낮에 일 주에 두 번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 요셉의원은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소속으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주민등록증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자, 행여자, 알코올의존증 환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가난하고 의지 할 곳 없는 이들을 사람으로 돌보며 그들이 자립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 날씨가 추운날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 한 50대의 허름한 옷을 입

어느 노숙자의 눈물



김철규(64, 서울)

고 모자를 꼭 눌러 쓴 채 한 노숙자 환자가 들어왔다. 진료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참동안 말이없었다.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안에는 틀림없이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디가 불편하여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한참후에 눈물을 닦으며 "선생님에게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왔으니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묵이 멘 소리로 말한다. "말씀 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봉사나 온 의사로 몸이 아픈분들을 돌보아 주러왔고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은 이곳 원장님이 하시지만 제가 힘이 닿는데 까지 도와드릴 터이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한참 침묵이 흐르고 입을 열지않더니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연다. "선생님께 부탁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15일전에 이 병원에 들렀더니 그동안 술을 많이 먹은 탓으로 간도 나빠져있고 방사선검사(흉부X-Ray)를 했는데 결핵으로 판명이되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여 약을 2주분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병에 걸리면 어느때라도 죽을 병인데 약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여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늘도 자고 나니 기침이 심하고 가래도 많이 나와 이제 얼마 못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장기는 다 못쓰게 되어어도 다행히 '눈' 하나만은 참으로 좋으니 이것을 앞 못보는 분에게 주어 광명을 찾게 해 주고 싶으니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다. 나 스스로도 그리고 봉사나온 옆의 간호사도 다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막가와 인생인 노숙자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쳐다보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 15일전에 왔다고 하여 X-Ray 필름을 가져오고 검사결과를 보니 결핵은 중정도로 진행되어 있고 가래에서는 결핵균이 검출된다. 그래서 환자에게 "제가 보기에는 결핵이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결핵은 치료만 잘하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불치의 병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서 열심히 치료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이 주신 고귀한 선물인데 왜 이를 버리려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죄를 지시는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는 대로 6개월~12개월만 치료하시면 거의 완쾌될터이니 자를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또한 지금 눈을 다른사람에게 주려해도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맥의 가래에는 결핵균이 나오니 다른 사람에

게 전염의 염려가 있고 2주만 약을 먹으면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치료하고 좋아하시는 술을 절대 먹지말고 완쾌된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참 생각하더니 "정말 폐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결핵은 절대로 불치의 병이 아니고 결핵환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핵협회가 있어 국가에서 책임지고 고쳐드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를 시작 하세요."

환자에게 인성을 높여 타이르는 소리를 옆방에 있던 원장님이 듣고 찾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간호사에게 용문에 있는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이라는 결핵요양소에 자리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한 결과 마침 한자리가 남아있어서 그곳에 입원을 알선 해주고 다음날 가기로 하였다. 그분의 얼굴에는 어느새 수심이 사라지고 새희망에 가슴이 벅차해 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틀림없이 6개월 후에 노숙자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새 일꾼으로서 탈바꿈 할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어느 노숙자의 '눈물'에서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님을 엿볼 수 있었다.

그분이 간 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본다.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울릴때 마다 불쌍한 이들에게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소망은 당신께 한없이 자비를 비는것 이오며 내게 보내는 모든 시선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덕이 되게 하소서.

<전면에서 계속> therapy (기억을 정리해가는 일종의 인지치료)인 셈이다. 비단 이 사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뭣 모르던 1년차 초반, 석기시대 행색의 환자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았다가 머리끝을 잡힌 채 한참을 끌려 다녔다. 도와달라고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잔뜩 달려 나왔다. 급세 모인 군중이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깝게 쳐다봤다. 어렴풋이 군중 속의 사람들이 떠오른다. 짧은 학생 가운을 입은 남자들,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 얼굴색만 기억나는 여자, 남자, 가운 입은 여자... 좀 더 은밀한 탈출구를 찾으려 했는지 엘리베이터를 앞에 두고 좁은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 왼쪽에 포개진 침대 두개가 있다. 더 들어가니 오른 쪽에 방이 있다. 방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다. 복도 끝에 다다랐다. 오른쪽으로 길이 계속된다. 끝엔 신경과 병동이 있다.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끌려온 길을 되돌아 다시 끌려갔다. 복도 입구로 다가가 바라보는 군중. 반쯤 가다 다시 유탄을 한다. 우리 병동에 알려달라고 외쳤다. 내가 어떤 자세로 끌려 다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환자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빠져나오려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토록 오래 끌려 다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철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병동 사람들이 잔뜩 달려 나왔다. 내 머리카락이 풀렸다. 환자는 주저앉아 침대를 꼭 붙잡고 있었다. 양 다리가 침대 다리에 꼬여 걸려 있었다. 눈빛엔 필사적인 투지가 담겨있었다. 달려 나온 사람들이 능숙하게 사지를 하나씩 잡더니 순식간에 다들 사라졌다. 군중의 규모가 늘었다. 사망에서 관음은지를 물어왔다. 태연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던 것 같다. 도망치듯 병동 안으로 돌아 들어갔다. 바리캬 땀통은 면했지만 온 몸

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보고서를 건네 받았다. 사인을 했다. 다들 하던 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난 잊었다. 한 가지 일을 기억하고 있기엔 수시로 너무 많은 일이 터졌다.

당시 난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병동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이 환자가 달려와 안으로 문을 잡아 당겼고 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환자가 탈출했다. 목숨 걸고 붙잡았다. 그동안 파악한 환경으로 미루어 환자를 놓치면 연이은 회의가 열릴 것이다. 책임감 운운할 것이고 경고장을 받고 근신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근신 중에 수시로 해고 위협을 받고 노심 조사 비굴해 보이는 뒷년차를 충분히 많이 봤다. 문을 잠그려면 늘 시간이 걸렸다. 이후 두 명의 환자가 도망갔다.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결국 단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문으로 교체됐다. 다른 환자가 도망갈 때도 사람들이 문에 대한 불평을 해낼 때도 있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 하고 그때의 감정만 기억한 채. 이 병동이 끔찍이도 싫었다. 연이어 석 달을 이곳에서 보냈다. 4년 동안 이 병동 근무를 하루도 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미웠다. 이듬해 1년차가 임신을 했다. 임산부를 들 수 없는 병동이라 바뀌치기 돼서 석 달을 더 살았다. 부자동네 사립 병원 병동에 파견 나갈 차례였다. 그 환자는 또 입원해 있었다.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응급실 당직 때도 자주 만났다. 3년차가 돼서는 낮 병동에서 보았다. 만남을 반복하면서도 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지 수개월이 지났다. A 사건을 잊으려 노력하는 마당에 경이로울 만치 깊숙이 억압돼 있던 기억과도 함께 맞서야 했다.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헛바퀴 돌듯 살며 겪어온 지난 일들이 끊임없이 연관되어 떠올랐다.

총 들고 죽이러 오겠다는 협박 전

화도 받았었다. 병원 경찰에 알리고 며칠 후엔 잊었다. 2년차 겨울 석 달 연속 응급실 근무를 하는 동안엔 여러 종류의 살상용 칼을 접했다. 마약에 취해 조카 가슴을 포 뜨고 잡혀온 사람이 서슬퍼런 눈으로 나도 죽이겠다고 했다. 감옥에서 이송된 사람에게 정신과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자 받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내 이름을 되뇌며 내 아이들에게도 세상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겠다고 했다. 아직 아이 만들 틈도 없었는데, 매일 밤마다 수십 개의 자문의뢰가 들어왔다. 자살, 타살 협박을 하는 마약중독 노숙자를 처리해달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개중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을 불러야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내쳐진 이들 중엔 병원 옥상서, 주차장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한 일도 많다. 응급실서 입원 거부했던 환자가 주차장서 기다리고 있다가 뒷년차를 두들겨 팬 적이 있다. 병동 교수가 환자한테 맞아 팔이 부러지고 남부로 이사 갔다. 병동 간호사는 같은 환자한테 맞아 얼굴 반쪽이 내려앉아 거둬되는 수술과 회복에 6개월이 걸렸다. 친한 동기가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감옥에서 데려온 수감자가 경찰 총을 뺏고 서로 뺏고 뺏기고 하다 총이 발사됐다. 사람이 죽었다. 그 후 출근해 응급실 문 앞에 서면 공황상태에 빠졌고 결국 해고당했다. 친해질 겨를도 없이 신경과, 마취과 등으로 전과한 동기들도 있다. 친했던 뒷년차는 응급실 석 달째 과로로 쓰러진 후 다시 적응을 못 하고 해고당한 후 의사를 관두고 집안 식당 일을 거두고 있다. 전공의는 장기관의 수이다. 비자 서류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다시는 외국인 안 받기로 했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초반부터 즐겼던 난 공공연한 총알받이었다. 비슷한 처지에서 몰래 항우울제 샘플을 먹으며 살아남은 3년차가 근무 스케줄을 보고 진작 가르쳐줬다. 스스로를 챙겨야 했다. 이제 나도 스케줄을 보면 희생용 쭈을 알아볼 수 있다. 작년부턴 이들도 챙기기 시작했다.

1년차에 같이 시작했던 4명의 여자 동기 중 4년차까지 남은 건 나뿐이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던 적도 있다. 마약 파티에 잡혀가 처형을 앞두고 사지가 묶인 밧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는 꿈을 밤마다 꿰다. 좋아하지도 않던 커피를 입에 달고 살다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기도 했다. 커피를 마시고도 매일 고속도로 운전대 뒤에서 잠이 들었다. 졸리고 지칠 때마다 에너지 충전을 했더니 몸이 고무풍선 같이 불어버리기도 했다.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그리고 다 견뎠다. 조금만 더 견디면 전공의 생활이 끝나는데.

사건 며칠 후 회의를 연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날 환자 발표를 준비해 오라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토의를 해보자고 했다. 나흘 동안 내가 관련된 모의가 있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산헤드린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며 예수님도 죽인 매우 위험한 문화 습성이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해준 동료도 있었다. 해야 할 말을 정리해보았다. 피해망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환경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했다. A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 치료자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의사를 수집해 모았던 것일지도.

회의는 흡사 영화 속 인민재판 내지는 마녀사냥을 연상케 했다. 독재에 맞서기 두려운 집단이 흔히 보이는 교과서적 현상들이 <다음면에 계속>

紙上法醫

뛰었느냐 넘어졌느냐

노용면(55, 대뉴욕)

뉴욕시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조그마한 쇼핑센터에서 있던 일이다. 의식을 잃은 셸돈씨(Mr. Sheldon)가 야외주차장과 참고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길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때가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 쇼핑센터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직후였다.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자동차는 상층주차장의 한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차좌석에는 새로 구입한 복사지 한 패키지가 들어있는 쇼핑백과 빈 술병 몇개가 있었다. 그 상층주차장과 참고건물사이에는 그들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오버패스)가 있었는데 셸돈씨가 발견된 장소는 구름다리 밑에서부터 약 10피트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의 머리에서 출혈이 심했다. 그는 인근 병원에 도착되자 곧 사망했다. 법의관이 그의 두부, 흉부, 복부 그리고 오른쪽 손에 여러개의 상처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개골과 늑골들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뇌, 우측 폐, 그리고 간에 열창이 있었다. 그의 혈중 알콜량은 0.11gm% 였고 소변 알콜량은 0.28 gm% 였다. 법의관이 그의 죽음을 급성알콜중독이라 진단했고 그것을 자살이라고 분류했다.

그가 초저녁에 집을 나서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알콜중독 방지협회(Alcoholics Anonymous, AA)모임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 9시쯤이면 돌아올 것이라 했고, 컴퓨터 복사지도 사 오겠다고 했다. 경찰이 그의 쇼핑백속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근거로 그가 복사지를 샀던 문방구 상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상점 근처에 술을 파는 상점이 하나 있음을 알아냈다. 그 술가게 주인이 기억하기를 자기가 셸돈씨에게 호주머니속에 들어갈 정도의 조그마한 싸구려 보드카(vodka) 세 병을 판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때가 저녁 6시쯤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알콜중독 방지협회 모임이 시작하기 전이었다. 셸돈씨를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가 한때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간부로 일한 적도 있었으나, 술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 술가게는 그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쇼핑센터에서 약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셸돈씨가 들어있던 생명보험회사가 보험료 지불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의 사인이 자살로 보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이 법의관실에서 제시한 남편의 사인분류에 대해 불만을 제시했고, 그녀의 변호사가 내 도움을 청해 왔다.

내가 사건수사의 일환으로 사고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그 구름다리 양측에는 4피트 높이의 담(웬스)이 있었지만, 상층주차장 둘레에는 무릎높이의 울타리(가드레일)가 있었다. 높은 담과 낮은 울타리가 주차장 한쪽 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상층주차장은 자동차 20대를 세울 정도의 크기였다. 셸돈씨가 4피트 높이의 담에 올라가 그 밑으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은 없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가 발견된 지점은 높은 담 바로 밑에서부터 약 10피트나 떨어진 곳이었고, 낮은 울타리 바로 밑이었다. 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의 분포상을 보아도 담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제외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무릎높이의 울타리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많았다. 그 울타리 밑은 어수선한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삐죽 삐죽 나온 바윗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고 나즈막한 나무들도 몇 개 있었다. 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의 분포를 보니 그가 울타리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몸 여러군데가 바윗돌과 나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기에 경찰이 그의 몸에서 물리적 증거를 별로 검출하지 않았었지만 셸돈씨를 처음 발견한 쇼핑센터 경비원에 의하면 그의 몸 밑에 부러진 나무 가지 하나가 있었다고 했다.

혈액과 소변에서 발견된 알콜량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가 술을 마신지가 사망하기 한참 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그가 땅바닥에서 발견된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서임을 암시했다. 보드카 세 병을 주차장에서 한꺼번에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급성알콜중독으로 죽지 않았다. 유명한 참고문헌에 의하면 급성알콜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의 혈중 알콜량은 0.42mg% 내지 1.77gm%(평균 0.74mg%) 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한 그가 울타리까지 갔다가 사고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그가 소변을 보러 그곳까지 갔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 셸돈씨가 들어있던 생명보험계약에는 그의 죽음이 과실사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두배를 지불한다고 하는 구절(double indemnity)은 없었다.

자살이란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이다. 이 케이스에서 이러한 의도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복사지가

불과 몇장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셸돈씨가 그것을 알고 금주자 회의에 가기 전에 문방구 상점에 들렀던 것이다. 그런데 문방구 상점 근처에 있는 술가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복스러운 표정(그의 견지로)을 보고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던 것이다. 술중독을 끊으려는 그의 결심이 순식간에 휩쓸어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심리적인 실수(psychological accident)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측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채용한 개인수사관이 셸돈씨의 최근 생활상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그가 자살을 할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금융계에서 일찌기 은퇴한 그는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에 의하면 그가 술을 끊은지가 한 달쯤 되었는데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컴퓨터 앞에서 보냈다고 했다.

사고 현장을 건축조사 전문가가 검사했다.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층주차장 끝에있는 낮은 울타리는 뉴욕주 건축법(The New York State Building Code)에 크게 위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셸돈씨를 처음 발견한 경비원, 건축조사 전문가 그리고 내가 증언을 했다. 쇼핑센터를 대표하는 변호사와 셸돈씨가 가입했던 생명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암시하기를, 셸돈씨가 담 바로 밑으로 뛰어내린 후 짧은 거리를 기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상처들의 정도와 분포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반박되었다. 법정은 결국 셸돈씨가 과실로 낭떨어지기를 했고 그 책임은 쇼핑센터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그 주차장 구조가 크게 수리되어 있음을 보았다.

Reference:
Randall C. Baselt: Disposition of Toxic Drugs and Chemicals in Man, 2002

〈전면에서 계속〉 나타났다. 그러다 내가 본능적으로 한 말들이 집단의 맘을 바꾸고 전공의들의 동질감을 끌어냈다. 전공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앞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단은 환자를 로비 같은 열린 공간에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상태에서 A를 외래에서 진료한다는 것이 내 능력 밖인데 자신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이 군중의 두려움을 유발했다. 내가 간혀 있으며 느꼈을 공포를 생각했을 것이고 스스로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렸을 것이다. 순식간에 이구동성 외래가 적절한 치료환경이 아니라고 입이 모아졌다. 개중엔 환자를 쫓아내자는 의견에서부터 인질극은 범죄니 경찰에 알려야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제사장은 그래도 내가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법원에 제출할 강제입원신청서 사인을 위해 응급실에 그를 불렀던 적이 있다. 강제로 약을 주려는데 그는 인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4명의 경찰과 들어가 2시간 설득을 했다. 20여년 경력의 응급실 간호사가 위험해서 겁이 난다며 그의 오더대로 약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 정신과 전문의 30년의 대부분을 행정업무만 한 그가 직접 설득해 먹이겠다고 했다. 바글대는 응급실 바쁜 와중에 나도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내 앞에서 서서 환정의 주체라는 여호와에게 기도하던 그는 환자가 꿈틀하자 어느새 내 뒤에 서 있었다. 결국 환자는 거품을 물고 흥분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이 사지를 침대에 묶어야했다. 긴장된 상

황이 왜 두 시간 넘게 지속됐어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석 달간 스토킹, 협박을 당하는 마당에 두려움을 접어두고 환자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의 태도에 소름이 끼친다. 나 혼자 A를 보는 것은 겁이나니 제사장이 함께 보자고 했다. 제사장이 당황했다. 얼굴에 불쾌함이 역력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나고 복도에서 혼자 조용히 불러다 회의 결과를 반복했다. 새로운 결정을 이메일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아무 결정을 못하겠다고 또 바뀌어 있었다.

한편 발동이 걸린 A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해댔다. 결국 애초 그를 나한테 보냈던 교수도 더 이상 A를 외래에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를 뒤편 다시 외래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A 스스로 25mg 먹던 약을 15mg까지 올린 것으로 보아 이제 통찰력이 좋아져서 다시 외래에 적합하다고 했다. 차트에 그 소견을 적어달라고 했다. A는 약물치료를 맡았던 젊은 교수 외래로 돌아갔다. 그는 A가 예약된 날에 자주 못 나왔다. 두 달간 A를 두 번 봤다. A는 매주 와야 한다고 때를 부렸고 젊은 교수는 다시 전공의 외래로 보내기 위해 열심히 정치를 했다. 전공의들 역시 A를 말지 않기 위해 분주히 작업을 했다. 두 달 후 다시 전공의 외래로 보내졌다. 새 차트가 만들어졌다. 며칠 후 다시 교수 외래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다시 전공의 외래로 돌아왔다. 이제 내 환자가 아니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환경에 대한

내 소견을 이미 충분히 얘기했으니 더 이상 A 일로 나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 모든 과정이 간혀 있는 동안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되새겨주었다.

아이가 원한다고 떡을 무한제공해 배탈이 나게 하는 부모는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무능하다. 떡 달라는 아이 매를 주는 부모는 아이 마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아이 스스로 떡을 놓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고민하는 부모야야 성숙한 자세로 아이를 위한다고 할 수 있다. A는 정신과 고아였다. 그를 돌본 부모들은 모두 미운 아이 떡 주는 심정으로 A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 42년간 버림받은 아이의 분노를 녹여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

사건 후 6-7주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혼자 있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그러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생각과 감정이 랩으로 싸여진 것 같다. 전에 친구가 걸렸던 멍-병에 걸려버렸다.

주변에 정신과 의사가 수두룩하다. 막바지에 별 일 없을 것도 같지만 치료를 받아야했던 동료들의 최후를 생각하면 혼자 이겨내야 한다. 한편으론 불안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전문 정신과 군의관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이가 생각났다. 제대 후 일 실수가 잦았다. 안쓰럽게 여긴 동료들이 여러모로 뒤치다꺼리를 해줬다. 전문가 스스로는 괜찮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수년 후 병동 한 복판에서 혼자 전쟁터로 돌아가 버렸다. 그는 2년째 기억이라는 괴물과 투쟁중이다. 그래도 난 제머리를 꺾을 수 있는 중도 있다고 믿

고 싶다.

최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를 보며 내가 사용하는 수식어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내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희망을 주고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도 보인다.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해냈다. 좋아해야할 일인지 모르겠다. 정신과 의사는 늘 표준이어야 한다고 학생 때 배웠다. 난 내가 그 표준이라고 생각했었다. 환자와 공감하고 있다. 아픔을 공유했다. 여기는 게 아니다. 아픔을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 아픔을 알게 됐다. 나는 표준이어야 한다는 전제(專制)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아플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쉽게 되지 않는다.

신경증 환자는 구름위에 집을 짓고 정신분열 환자는 그 속에서 살고 정신과 의사는 집세를 받는다. 같이 아파도 다르다. 전공의는 잡초 같아 웬만해선 밟아도 밟아도 자꾸 별떡별떡 일어난다. 전공의가 되기까지 이미 수많은 생존경쟁으로 그럴 수 있는 이들이 걸려진 집단이다. 그러나 화초 같이 약한 A에겐 밤낮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한 번의 실패를 안고 환상과 망상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 버리게 될 A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 이미지가 떠오른다. 답답하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도 환자에게도 위험하다는 걸 이미 배웠다.

I doubt sometimes whether a quiet and unagitated life would have suited me—yet I sometimes long for it.

—Byron

영화 감상 51 Birch Street



이 희 경 (61, 대뉴욕)

'51 Birch Street'는 내가 살고 있는 뉴욕 근교 Port Washington의 한 주택의 주소이자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화 팬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home movie류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다. 몇 일 전 Port Washington Library에서 있었던 시사회에서는 감독인 Doug Block씨가 시청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져 영화의 배경 상황을 들려 주기도 하였다. 2차 대전 후 미국에는 baby boom과 함께 도심에서 가까운 근교(suburb)로 이주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거니와 이들 suburbanites의 꿈은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기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일 거고, 이 영화의 주인공 Mike and Mina Block 부부의 가정도 이런 행복한 郊外家庭의 표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 영화의 제작감독이자 아들인 Doug은 생각하고 있었다. 두 누나를 둔 막내둥이 아들 Doug은 좀 개구쟁이인 편이었고 학생시절에 취미로 home movie에 손대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영화제작에 종사하면서 고전하고 있던 중 이전에 틈틈이 촬영해 둔 home movie 조각들을 정리 보완하여 한편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 영화를 끝낼 요량으로 틈나는 대로 자기가 자라났고, 은퇴한 부모가 아직도 살고 있는 옛집을 방문하여 부모와 화면 interview를 하거

나 가족 모임 같은 행사를 촬영해 가는 도중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 전연 예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발전의 전기가 도래한다. 어머니가 없는 옛집에서 아버지와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회상해보면 아버지는 지하실에 자기취미의 각종 작업기구와 잡다한 공작재료들을 산재해놓고 거기서 여가를 보내며 자기의 안식처를 찾으려 살았고 가족들과의 밀접한 교환은 드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실한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평균이상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들에게 실토한 적도 있다. 항상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의 중재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았던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지만 점차 부자는 단독대화 촬영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익숙해진다. 어머니 사망 후 석 달이 채 안되어 플로리다에 휴가간 83살의 아버지로부터 사십 년 전의 여비서 Kitty와 만나 결혼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Doug은 당황하고 수상한 의혹을 느낀다. Mike와 Kitty의 결혼식에는 친지들과 아들 딸들이 참석하여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뒤로하고 마음을 열고 즐거운 축하연을 나누고 Doug은 유머 섞인 축하까지 하여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행복을

축원해 준다. 아버지와 Kitty는 서둘러 수 십 년간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고 플로리다로 이사 갈 준비를 시작할 때 Doug은 마지막으로 옛집을 방문 하여 무진장으로 쌓인 버릴 것을 뒤지다가 어머니가 35년간 기록해서 세 개의 상자에 채워둔 수십 권의 일기장들을 발견하는데 이 일기장에서 또 한번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다. 부모의 54년간의 결혼은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이고 훌륭한 것으로 믿었던 Doug에게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행복하지 못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치료사를 열렬히 사랑했다는 비밀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머지않아 영구히 플로리다로 떠나 버릴 아버지를 놓칠세라 Doug은 카메라를 더 분주히 구사하며 자기 부모의 결혼 미스터리를 가려 불 각오로 가족과 친지들을 더 열심히 면담하는데 점차로 더 솔직해지는 대화를 거치면서 종국에는 부모 두 사람의 과거 비밀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심경에 이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다. "옛 사진에서 아버지 젊으실 때 많은 예쁜 여성들이 아버지 주위에 오간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씀이 있나요?" "그래, 주위에 어여쁜 여자들이 많았던 가보다" "그들을 즐기셨나요?" "물론이지 나는 예쁜 여자들이 좋았어" "어머니 모르시게 숨긴 일은 없었나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니야 없었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게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없나요?" 또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래 있다. 너는 행복하냐?" 前夫의 자식을 데리고 온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아들도 머뭇거리다가 "예 행복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여자를 만난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이다." 아버지와 Kitty가 떠나버린 옛집은 적막한 애환을 불러 일으킨다.

영화 시사 후에 Doug가 들려준 이야기 중: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통신을 받고 있으며 자기와 두 누나들은 미국의 곳곳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관련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어머니의 일기장들은 독신인 큰 누나가 보스턴으로 가져가서 탐독에 씀하고 있다. 남미 어느 곳에서 발간된 영화평에는 "51 Birch Street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주소이다."라고 했다. 팔린 옛집은 뜯어서 개축하고 있다.

시계탑 편집위원 모임 초록

모임은 2007년 3월 21일(수) 저녁 7시에 뉴욕 후러심에 있는 청해진에서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유니온 인쇄의 황사장이 준비해온 원고들을 나누어 읽고 교정과 편집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조동준 회장이 발송했다고 하는 설문은 답신자가 6명에 지나지 않아 찬반토론 끝에 이번호에는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호에는 많은 원고가 들어와서 반가웠으며 동문들의 계속적인 투고를 부탁하고 싶다. 편집장 김병석(59)

지난번 서울의대 총 동창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명강의를 했던 김용재씨의 아들 Louis가 장가를 간다고 청첩장이 왔다. 준수한 외모에 딸 가진 부모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던 그 총각이 터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매혹적인 아가씨와 결혼을 한댄다. 결혼식을 아리조나의 Phoenix에서 하는데 친구들이 여럿 모이니까 golf outing을 가지기로 한댄다. Dr. 김께서는 항상 그러듯이 이번에도 큰 뺨을 빌려서 여러 친구들과 집을 챙겨주러 공항에 나와 계셨다. 이번엔 동생들까지 동원해서 친구들을 챙기셨다. Mrs. 남궁이 길눈이 밝아서 우리는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는데 Dr. 민발식께서 운전하는 차에는 의학박사 세명이 탔는데도 호텔을 뺨히 보면서 입구를 못찾아 30분 동안 뱅글뱅글 돌았다고 해서 웃었다. 일찍 도착하신 이명희씨와 조관상씨는 벨 보이로 나서서 밤마다 친구들 집을 옮겨다 주며 팀도 안 받으셨다. 미국의 관광명소로 뽑힌다는 Arizona Biltmore Resort는 말 들던대로 돌로 지은 성곽같은 고급 리조트였다. 눈속에 파 묻혀 있다가 꽃들이 만발한 그곳은 돌산을 배경으로 근사했다. 야외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종교 의식은 안하고 관사앞에서 서로 부부가 되기로 "I do"를 하라고 했는데 신랑은 시종 일관 수줍어서 "I do"를 가만히 하는데 신부가 너무 좋아서 어찌나 크게 "I do"하고 외치는지 모두 웃었다. 선서하고는 그 자리에서 증인 입회하에 결혼증명서에 싸인을 하라고 했다. 옆에 앉았던 Dr. 민발식씨가 "이젠 빼도 박도 못한다." 하고 웃기셨다. 성악가 국영순씨의 축가에 신부쪽 하객들이 감탄을 했고 턱시도를 입은 신랑쪽 하객들은 멋있고 근사했다. 장가 간다는 소리에 대전여고

출업생들이 모두 다 울었다는 홍준호씨에, 부산여고 졸업생들이 모두 다 울었다는 민발식씨에, Mrs. 민이 한번 보고 뽕 갈뻔 했다는 노규상씨 등, 인재들이 준비하니 당연하다. 폐백을 신

관이 끝없이 넓게 있는 곳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아리조나의 사막은 벌판에 돌과 가시나무와 선인장이 우뚝우뚝 서 있고 높고 붉은 돌산들이 서 있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들이 된 사연

김 혜 자 (Mrs. 황철 66, 뉴욕)



부 부모도 받고 좋아하는 개량된 순서도 있었고 신랑 등에 업혀 좋아하는 색시의 모습이라니. Dr. 김 부부는 결혼준비보다 친구들과 골프 outing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느라 미리 가서 쳐보고 물색하러 여러번 다니셔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저 우린 같이 모여 아침먹고 웃고 런치박스 받아들고 저녁식사는 Dr. 김께 박수만 치면 다 나왔다. 30여 명이 되는 큰 그룹을 매일 저녁을 내셨다. 둘째날은 Pinnacle Park Patio라는 사막 가운데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으로 갔다.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사막이라 하면 바닷가의 백사장같은 모래벌

Pinacle Peak라는 잘생긴 돌산도 석양에 붉은색으로 물들며 장관이었다. 2000명이 들어간다는 식당엔 천정이 모두 뿔뿔하게 넥타이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음식 주문을 받으면 뚝뚝하고 터프한 아가씨가 갑자기 가위를 꺼내더니 넥타이를 맨 Dr. 김 앞으로 다가가서 이곳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은 카우보이가 되는거니 넥타이 같은건 필요없다며 가위로 넥타이를 싹싹 잘라 갖는다. 만일 넥타이를 안짜르겠다면 선인장에 매달겠다고 위협이다. 이명희씨도 잘리고 조관상씨는 아들의 고급 실크 타이를 매고 오셔서 제발 짜르지 말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싹싹 잘리셨다. 눈치 빠르신 몇 분은 후다닥 타이를 풀으셔서 카우보이가 안되시고 세 분만 카우보이가 되서 어깨동무를 하셨다. 골프 시상식이 있었는데 조의열 동문이 상품협찬을 하셨다기에 근사한 작품사진을 보내셨구나 했더니 뜻밖에도 (구혼에서 신혼으로 돌아오는 신비의 명약 바이아그라)가 들어 있었다. 핸들을 써내고 성적을 계산하는데 이번에도 또 나는 명예의 꼴찌를 해서 감투상을 받았다. 이명희씨 말에 의하

면 Dr. 김이 첫날은 아들 장가들이 턱을 낸거였고 둘째날은 명예로운 서울 의대인이 된 턱을 내신거고 셋째날은 박수만 쳐주면 또 저녁이 나온댄다. 밤마다 카지노에 갔었는데 여자분들이 돈을 더 많이들 따셨다. Black Jack을 새로 배운신 Mrs. 김진수씨는 "요래하고 조래 했더니 돈을 320불이나 따어예" 하시고 Mrs. 정상국은 5전 짜리 슬롯머신에서 했는데 첫날은 870불이 나오고 다음날은 1불짜리에서 했는데 1000불이 나왔다고 거금을 동기에 기부하셨다. Dr. 김의 Black Jack 제자들은 20%만 따면 일어서야 한다는 수칙을 열심히 지켜서 노잣돈을 다들 따셨댄다. 마지막 날엔 나도 구경을 갔었는데 어찌나 담배들을 피워대는지 족제비 잡는 굴속같이 연기가 자욱해 목이 칼칼해 지는데 정신없이 계속 버튼을 눌러대며 돈을 쏟아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다. 노규상씨 부부는 춤 선수들인데 골프를 시작하지 3년 됐다는데 아주 스윙폼이 예쁘게 잘 치셨다. 첫날 같이 친 내게 누가 "Mrs. 노는 어제 탕고 추던 것처럼 스윙을 해요?" 하길래 "아니요 월츠 추던 것처럼 해요" 하고 답했다. Dr. 남궁승은 아직도 충청도 양반 그대로 이신대 운전도 마누라가 하도록 두셔서 아주 느리신줄 알았더니 남편 왈 "골프장에서 그 친구도 성질이 아주 급하더라 구 조규용씨를 태우지도 않고 막 카트를 몰고 혼자 달려가서 조규용씨가 나도 태우고 가라고 부르셨어." 한다. Dr. 남궁이 남럽한 Sudoku라는 숫자 맞추는 퍼즐게임을 가르켜워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다음 비행기 못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별써 다 왔어" 한다.

내 마음

이 한 중(65, 미시간)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갈대요,
오히려 내 마음은 해바라기

이세상에 태어나, 저 탄탄한 땅을 뚫고,
처음 고개를 들어 철이 난뒤,
나는 해바라기 마냥,
밝은 한쪽, 태양이 비치는,
밝은 내일을 향하여,
무엇인가 목 마르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 왔읍니다.

오늘같이 눈보라 휘날리는 미시간 겨울에도,
꽃이 만발하는 봄 나절에도,
온 세상이 초록으로 덮힌 찬란한 여름철에도,
내가슴을 아프게하는 가을철 단풍시절에도,
내 마음은 해바라기,
어쩔수없는 소망들에 가득차,
내일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 왔읍니다.

나의 기다림, 기도와 갈망은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어느새 기다림의 고독, 고통일랑,
벌써 잊어버리게되고
해바라기의 갈증은 흥건히 적셔지고,
나는 어느덧,
그분의 품속에서 꿈나라를 헤매며
하루 하루를 살아 왔읍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갈대요,
오히려 내마음은 해바라기

저 태양이,
저 산 넘어로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까지도,
초생달이 늦게 얼굴내미는 캄캄한 밤에도,
오직 말없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씩씩하게,
나는 목이 빠지랴 기다리겠읍니다.
이 가슴 어지도록 염원하는것들,
사랑하는것들을 위해,
이 몸이 그여코 땅위에 쓸어져,
저 훈훈한 흠에 파묻힐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겠읍니다.
기도하고 갈망하겠읍니다.

농담골목

오랫동안 사랑하던 개가 죽어서 천주교 성당에 갔습니다. 그가 신부에게 개를 위해 기도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신부가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안합니다. 저기 길 건너에 있는 감리교 예배당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 주인이 신부를 보고 "5,000불을 내면 저 교회에서 기도를 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 개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는 말을 왜 안했나요?" 라고 했습니다. (변)

마누라를 항상 맥주병이라고 부르는 정신병자가 있었다. 병원생활이 지겨워 그는 항상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를 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몇 달 후, 드디어 면회 온 마누라에게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나가기 전 책상위에 있는 소주병을 보더니, "어

이, 처제가 여기 웬일이야?" (이덕승)

환자: 저는 침대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침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미칠 지경입니다. 선생님.

의사: 에- 증상이 좀 심한 것으로 보아 2년 동안 나한테 치료를 받아야겠군요. 매주 세번씩 오세요.

환자: 치료비는 얼마예요?

의사: 한번 올때 마다 200달러요.

환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개월 후 그 환자가 거리에서 의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의사: 왜 다시 오지 않았죠?

환자: 한번에 200달러나 들어 가면 서요? 바텐더가 단돈 10달러에 고쳐 준걸요.

의사: 어떻게요?

환자: 침대 다리를 없애 버리라 더



얼굴을 붉히면서

서 량(69, 대뉴욕)

섹스(sex: 性)와 섹션(section: 面)은 라틴어의 '구분하다(secare)' 혹은 '짜르다(sectio)'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명실공이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말이다.

14세기 말에 'sexus'라는 단어가 '남녀의 차이'라는 뜻으로 당시 라틴어를 쓰던 유럽인들에게 선을 보였다. 현대어로 '종파(宗派)'라는 의미의 'sect'도, 해부한다는 'dissect'도 다 같은 동네 출신이다.

섹스, 다시 말해서 '구분하다' 또는 '구획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이 나 나 같은 현대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가.

우리말도 마찬가지다. '성(性)'은 한자로 '품성 성.' 이 말은 더도 덜도 없이 '품격과 성질'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교(交)'는 '사귄 교'이니 결국 '성교'라는 말은 '품성을 사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교'라는 말을 들으면 아닌 밤중에 벌거벗은 남녀를 연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섹스도 성교도 그 본래의 중립적인 뜻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떤 음란한 연상작용이 우리의 감성을 뽕뽕 착색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본능에 입각한 집단심리의 울긋불긋한 색안경을 쓰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고 있다.

이쯤해서 더 정도가 심한 말을 해볼까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f-k'의 어원에 대한 연구조사다.

영국에서는 1857년, 미국에서는 1873년부터 법으로 사용금지가 됐던 이 단어는 1965년에 비로소 펭귄 사전(Penguin Dictionary)에 올랐다. 그만큼 양키들은 보수적이었다. 1971년에 야 연방 고등법원에서 활자로 표기되는 것이 허용된 바 있는 이 이상야릇한 단어는 그 말의 뿌리에 대한 의견 또한 참으로 분분하다.

13세기에 구어로 등장한 'f-k'는 라틴어의 'fuccant'에서 왔다는 학설이 있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고어 'fukka' 혹은 'focka'에서 유래했다는 추측이 있다. 북유럽발음으로 독일어의 'ficken'은 '앞뒤로 빠르게 운동하다' 라는 의미가 16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때 'f' 발음은 음성학에서 '마찰음'이라 한다. 윗니가 아랫니를 지긋하게 깨물 때 나오는 소리.

명색이 지성인으로써 우리말 중 입에 담기에 꺼림직한 말이 몇 있는데

군요. (이덕승)

정형외과 의사가 잘못하여, 손을 잃은 젊은이에게 여자 손을 이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변소에 가면 그 손이 고추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권익)

수십년 동안 아내에게서 전도를 받았으나,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교회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하루는 흥분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느님의 기적을 보았지 뭐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지요?" 라고 물으니, "제가 요즈음 기도생활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서 문만 열면 화장실속의 불이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안만져도 저

그 중에 하나가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 단어는 '씨(種子)의 입(口)'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한다.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차라리 영어의 'sip'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형편상 속이 편하리라.

'sip'은 야후사전에 그 뜻이 '조금씩 마시다, 찹찹찹 마시다, 훌쩍이다'로 나와 있다. 이 단어는 의성어(擬聲語)다. 학구적으로 말하자면 'sip'의 's' 발음은 이빨과 혀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 치설음(齒舌音)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들 귀에 '훌쩍'으로 들리는 소리가 양키들에게는 '십'으로 들린다는 것. 이를테면 우리 귀에 '꼬끼요~' 하는 새벽 닭 우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cockadoodledoo~ (카커두들두~)'로 들린다는 사실도 동서양간의 의성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일깨워 주고 있다.

극작가이자 음악가이면서 천재로 소문난 영국의 코미디언 빌리 코넨리(Billy Connolly)는 작년에 'f-k'가 '의성어'라는 단정을 내렸다. 어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 보라. 소스라치게 공감이가는 학설이 아닌가.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퇴근길에 눈보라가 심하게 쳤다. 하늘이 온통 캄캄하면서 미끌미끌한 파크웨이에서 차체는 중심을 잃은 채 심하게 비틀거렸다. 그 무지몽매한 차를 운전하는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오락가락했을까. 지도 모르는 사이에 양키들이 물 마시는 소리며 입술을 깨물고 하는 마찰음이 저절로 튀어 나오더니,

(뉴욕 중앙일보 서량의 고정컬럼 <잠망경>에 3월 21일자로 게재)

嘉泉 李吉女 선배님을 기리는 詩

소수 김택수(63, 네바다)

가천
봄엔 봄에 피는 꽃
여름엔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만
가천 그대는
삼백육십오일
날이면 날마다 피는 꽃
그 꽃 향내음 온 동산에 퍼지누나

절로 불이 옵니다." 목사가 "그럴 리가요?" 라고 하니 "정말입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하나님께 기적을 믿지 않으니." 할 말을 잃은 목사가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후 목사가 할머니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려 주었더니 할머니가 흥분해서 하는 말이 "이 영감태기, 어쩐지 요즈음 냉장고에서 지린내가 진동하더니." (김세-)

이교도 여성과 결혼한 유대인이, 그들 사이에서 난 열 살 짜리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유대인 아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만 유대계입니다. 그러니 배꼽 아래까지만 물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기차로 떠나는 콜로라도 여행

"Discover West America"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장엄한 산들과 험악한 절벽, 계곡을 따라 맑고 깨끗한 콜로라도 주를 기차를 타고, 가장 경치 좋은 국립공원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2007년도 여름 휴가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61년 졸업동기 50여명에게 reunion 행사로서 크게 환영받은 바 있는 이 프로그램은 동기여행으로도, 가족여행으로도 크게 추억에 남을 여행입니다. 참가인원과 신청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June 16 ~ 24, 2007

for 50 people only(first come, first serve)

Reservation: Centennial Travelers

Toll Free Phone: 800-223-0673 contact Sandi

\$200 per person due at time of reservation

Price: \$1,189 double occupancy (\$1,579, single)

회장 조 동 준 (64)

상세한 프로그램은 주관여행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ndi@centennialtravel.c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